

신진예술가기획지원

바로 그 지원 결과자료집

2019-2020



신진예술가기획지원

바로 그 지원
결과자료집

2019-2020



신진예술가기획지원

바로 그 지원
결과자료집

2019-2020



CONTENTS

바로 그 지원..... 05

2020년

7월 바로 그 지원

7월 바로 그 지원 소개..... 12
프로젝트 소개..... 16

8월 바로 그 지원

8월 바로 그 지원 소개..... 48
프로젝트 소개..... 52

바로 그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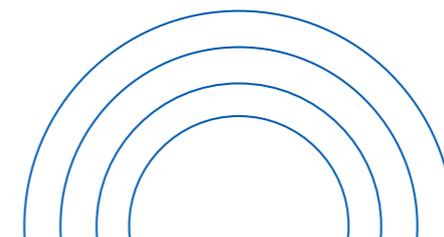
바로 그 기획 소개..... 82
프로젝트 소개..... 84

바로 그 지원 현장 스케치..... 90

바로 그 지원 프로그래머 리뷰..... 92

특별부록

2019년 바로 그 지원 비엔날레..... 96





인천문화재단 신진예술가기획지원 <바로 그 지원>

<바로 그 지원>은
청년예술가의 낯선 등장을 환영합니다.
청년예술가의 낯선 작업을 지지합니다.

<바로 그 지원>은
청년예술가의 소중한 창작활동을 위해
사람, 공간, 자원과의 연결을 돕는 소규모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청년예술가의 예술적 안목을 열고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들의 작업을 지지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지원>에서는
인천에서 먼저 활동했던 동료 청년예술가들이
당신의 작업을 응원하고 지역과의 연결을 돕습니다.
지원사업의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예술가들이
새로운 실험과 작업을 진행하며
함께 예술을 하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년예술가 #예술실험 #연결 #교류 #만남 #동료

사업명	신진예술가기획지원 <바로 그 지원>
사업대상	만 39세 이하의 신진예술가 또는 신진기획자 1) 바로 그 지원 : 신진예술가 지원 2) 바로 그 기획 : 신진기획자 지원
사업기간	7. ~ 12.
사업장소	인천 관내
목적	· 신진예술가 및 신진기획자의 지원사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사업 · 다양한 분야의 신진예술가들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기능 · 지역의 새로운 공간을 발굴, 신진예술가들 간의 작업을 연결하고 소개함
진행과정	
지원내용	· 프로젝트 지원금 1) 바로 그 지원 : 최대 300만원 이내 2) 바로 그 기획 : 최대 600만원 이내 · 프로그래머(동료 청년예술가)와의 미팅을 통한 맞춤형 인큐베이팅 · 동료 예술가와의 네트워크의 장 · 사전 온라인 홍보 지원

2020 바로 그 지원

여름이면 돌아오는 <바로 그 지원>

올해 <바로 그 지원>은 7월, 8월 두 번에 걸쳐 청년예술가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 지원>에 참여한 청년예술가들은 인천에서 먼저 활동하고 있는 동료 청년예술가를 만나 PT발표를 위한 도움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기획>에 참여한 청년기획자들은 <바로 그 지원>에 참여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인천의 새로운 공간들을 발견하고, 청년예술가끼리의 연결을 통해 재미있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프리젠테이션 데이에 만나 서로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상황 속에서도 청년예술가와의 만남은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채팅방과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만남은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인천에서 펼쳐진 청년예술가의 새로운 예술실험 <바로 그 지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신진예술가기획지원

2020
바로 그 지원



7월 바로 그 지원



7월 <바로 그 지원> 청년예술가

no.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1	오헬렌&최솔	<LIPS> 뮤직비디오 제작
2	이경은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_over the milky way
3	이종환	평면, 입체 질투
4	신용진	이미지 되지 못한 이미지
5	손상우	한지와 합성수지를 활용한 아트퍼니처 전시
6	김민경	도망가-르 수 없-는 몸
7	조하늘	나 그냥 랩 좋아하는 애 아닌데
8	조준형	당신의 공간을 점유하라!
9	김한	네 발 달린 노동자 10분 희곡 쇼케이스
10	류성국	거리두기X거리예술 프로젝트
11	이해미	생물멸망 시나리오
12	메리코발트(김현지)	메리코발트에게 물어보살
13	백승철	축원
14	송가영	'시' 로 보는 판소리 'See'
15	애니웨어(장효강)	안녕. 산곡 1동

7월<바로 그 지원> 프리젠테이션 데이

일시 : 2020. 7. 31.(금) 1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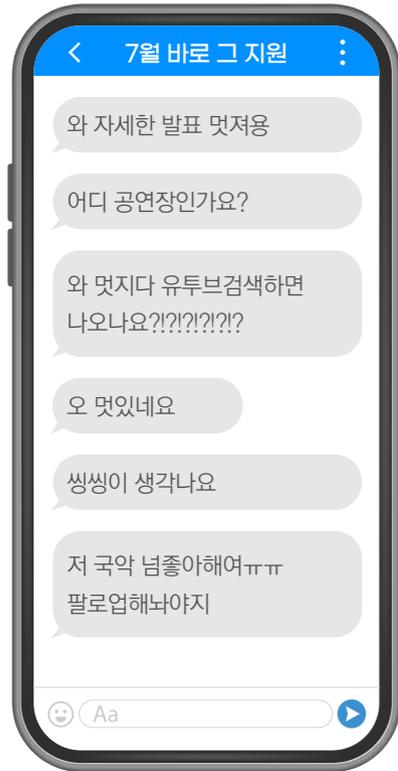
장소 : 시작공간 일부 공유판

참여 : 7월<바로 그 지원> 공모참여자 31팀, 심의위원 3인, 프로그래머 5인

목적 : 7월<바로 그 지원> 심의·선정 및 동료예술가 교류의 장



오픈채팅



7월<바로 그 지원>
오픈채팅방 글 발췌中

노래 너무 재밌어요

작품 제작 공정이 궁금합니다~

오 작업을 엄청 퀄리티있어 보여요

와 나무 오브제들 진짜 고급져요ㅠ 탐난다

와 진짜ㅠ 사고싶어요 돈만 많으면 제가바로 당신의 콜렉터

ㅋㅋㅋㅋㅋㅋ

한지에 수지를 발라서 작업하시는지 아니면 수지에 한지물? 한지를 잘게 잘라넣어 굳히신건지 궁금해요!

그럼 바로 그 지원 전시는 안개를 표현하는 작업을 선보이시는 건가요??

와 진짜.. 조형 미감 색감 뒤집어 놓으셨어요

분홍벤치에 앉아서.. 꽃전이랑 다과랑 함감 꽃차떡볶이마시기..

포스터는 포토샵으로 작업하신건가요?

고민을 들어주는거 힘든일인데 멘탈관리 잘 하세요ㅠㅠ

사연을 듣고 즉흥곡으로 하나요?

우와 연구소

연구소위치는 어디인가요!ㅎ

머리에 털이 너무..쓰다듬어 보고 싶게 복실해 보여요...한번만 쓰다듬어보고 싶어요..

재료에 대한 이해.. 멋져유

즉흥적인 작업이 가능하신가요?

그림을 깎다니 특이해요!

전체가 판타지 혹은 픽션인가요? 굉장히 창의적이네요

최대 크기로 만들면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가요? 만드는데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벨소리 너무 재밌어요

멋져요!!

지금 작업하는 작업하나 마무리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재료에 대한 이해.. 멋져유

그림을 깎다니 특이하고 신박!

멋져요!

심의총평

<바로 그 지원>은 청년예술가들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바로 그 지원>은 총 3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심의위원회는 그 중 15건의 지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청년예술가의 참신한 상상력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지원신청건 중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시각과 '힐링'을 주제로 하는 작업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예술가들이 비대면의 상황 안에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삶에 밀접한 고민을 각자의 작업에 녹아내는 방식을 통해 환경에 따라 예술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악을 비롯한 전통분야의 프로젝트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신선하고 도전적인 작업이 많지 않아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작업의 완성도, 전문성 보다는 청년예술가의 실험성, 예술성,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사회와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담은 작업을 자유롭게 다루고 표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7월 <바로 그 지원> 심의는 직접 대화와 접촉을 최대한 줄이되, 서로간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픈채팅'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공간에서 참여자들의 많은 질문과 동료예술가들 간의 응원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대면에 취약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원> 사업의 실험성도 재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6년차를 맞이한 <바로 그 지원>을 향한 청년예술가들의 뜨거운 관심이 지속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양하고 낯선 상상과 교류가 <바로 그 지원>의 주요 장점이고, 또 그것은 지원자의 적극적인 의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원한 여러분의 예술적 삶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심의위원

- 신재훈(연출가)
- 읍쓰양(시각작가)
- 이근욱(미술비평가)

프로그램머

- 권근영(연출가)
- 박가인(시각작가)
- 박준석(시각작가)
- 윤대희(시각작가)
- 이권형(뮤지션)

오헬렌&최솔

<LIPS> 뮤직비디오 제작

오헬렌&최솔의 EP 앨범에 수록된 <Lips>의 뮤직비디오 제작 프로젝트이다.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서로를 인지하고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며 서로에게 의미있는 존재가 되어 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제작된 뮤직비디오는 북극서점에서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공개하게 되었다.

말로 인해 생기는 소통의 간극을 계속 느껴왔던 것 같다. 그래서 언어가 아닌 이미지로 때로는 리듬이나 멜로디 뒤에 숨어서 총명한 느낌과 감정을 대충 대충 얼버무리며 표현하기 시작했다. 조금은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덜 부끄러워졌다. <Lips>는 입술들이 만나 재잘거리는 오색찬란한 꿈같은 느낌으로 만든 곡이다. 9월부터 제작회의에 들어가 구체적인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촬영을 진행했다. 그리고 12월에 발매될 새 EP 앨범 한 권에 소중한게 담았다.

시작은 이렇게 몇 줄의 문장에서 출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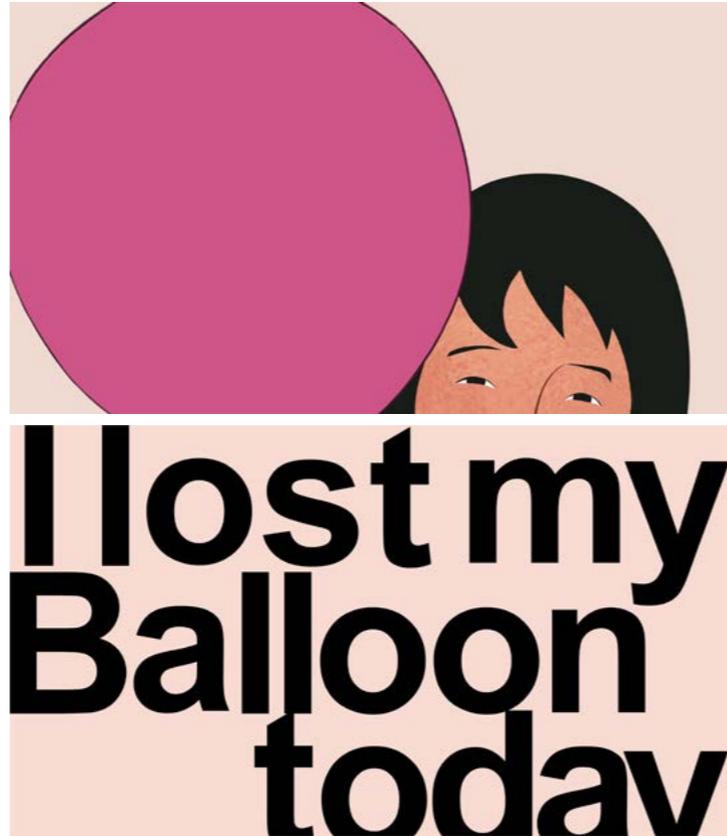
Balloon

I
풍선이 나무에 걸렸다
외로웠다
II
어느 날,
다른 풍선이 바람에 날려 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다
III
풍선은 이제 덜 외로웠다

2020. 12. 31. (영상공개)

유튜브 [Ohelen&Choisol 오헬렌&최솔 - 주제] 채널

참여 최솔, 오헬렌, 리인규



풍선은 언젠가는 바람이 빠지고, 더 이상 누군가의 숨을 담을 수 없는 순간이 오고야 만다. 짧은 생의 기록 같았다. 나이 들수록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어려웠다. 같은 단어를 말해도 다른 의미가 되어 오해를 만들기도 했다. 여전히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나의 숨을 너에게 나눠줄게' 라고 말하고 싶었다.



이경은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_over the milky way

우리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행복은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이 삶의 주인은 시간도 아니고 달걀도 아니다. 이 세상을 감각하고 있는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우주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차원을 감각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공간에 시간이라는 차원이 더해진 4차원의 세계이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4차원 중에서 오직 공간 차원에서만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즉 시간 차원에서는 거꾸로 돌아가거나 앞으로 뛰어넘는 등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다. 빛의 흐름에 순응하며 앞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여기서 의문을 가졌다. 시간도 공간처럼 상하좌우 이동이 가능하고 물건을 옮기는 것처럼 시간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만약 시간 차원을 감각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에게 세상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본인은 이를 바탕으로 '시간 개념이 없는' 차원에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설치작업과 영상 퍼포먼스 작업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나는 무엇이며 너,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우리는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수없이 되풀이한다. 본질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회의가 삶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질문은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으로 철저히 결부되어 있으며 결국 인간 본인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시간'에 완벽히 귀속되었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탄생과 동시에 소멸을 바라보는 불안정한 인간은 고대부터 절대적 존재인 '신을 찾았'고 이를 통해 시간의 한

2020. 12. 12. - 12. 18.
인천문화양조장(스페이스 빔)

계를 극복하고 현생에서 비롯된 허무함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으려 했다.

“우리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행복은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행복을 찾고자 시작했던 작업은 시간에 대한 본질적 개념으로 이어졌다. 존재 실존의 개념이 시공간의 구분이 없는 세계에서 시간이 아닌, 공간 향유의 개념으로 인식된다면 이러한 생각이 시발점이 되었다. 인간은 앞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순응하여 살아간다. 모든 것은 시간이 내리는 명령 하에 움직이고 때론 기계 부품이 되어 씌 없이 돌아가는 삶에서 권태로움을 느껴 매너리즘에 빠진다. 본 전시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_over the milky way》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을 영상 작업과 설치 작업으로 풀었다. 본인은 좀 더 직접적인 감각을 통해 본질에 대한 자각을 시간이 아닌 존재 그 자체에서 끌어오자 했으며 '5차원 세계'라는 가상의 개념을 작업의 배경으로 가져왔다. 시공간이 뒤섞이고 공간과 존재의 개념이 시간개념을 뛰어넘은 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의 공간 차원에 시간 차원이 더해진 4차원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기에 불안정한 4차원에 살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한 5차원이란 시공간의 이동이 가능한 세계로 시간의 개념이 없고 오직 공간의 상대적 위치로서 존재의 개념이 설명되는 곳이다. 이를 바탕으로 영상 작업에서는 '달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5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영상 초반에는 매너리즘에 빠진 인간을 대변하는 존재로, 영상의 후반부에는 5차원 세계로부터의 도약을 위한 매개체로 등장한다. 약 30분

정도 되는 영상은 관객에게 '왜 우리는 살고 있는가'를 계속 질문하게 만든다. 영상은 달하가 사방으로 펼쳐진 몸을 둥글게 말아 웅크린 채 끝이 난다. 그 모습은 마치 모태의 배 속 태아의 형상과 닮기도 하고 그냥 단순한 하나의 점 같은 덩어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얇은 천을 온 몸으로 끌어 안고, 펼쳐 보였다가 웅크리는 달하의 몸짓은 자신의 손 끝에 시선을 둔 채 연결된다. 온전히 자신의 몸짓에만 집중하는 것, 시간을 자각할 수 없었던 상태, 모든 존재의 시작이자 기원이 되는 공간으로 귀결되는 모습은 순수한 본질의 자각이자 실존 그 자체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이종환

평면, 입체 질투

화면에 드러난 환영의 공간과 재현된 이미지를 인지하고, 그것이 감추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물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재현을 인지하는 것과 실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환영적 공간을 인지하는 것과 물리적 공간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 평면 회화를 재 감각하며, 그 어떤 가능성을 목격하려한다. 재 감각하며 목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얇은 면 위에 드리우는 깊이를 의식하고, 입체적 접근을 즐겨보며 표현의 행위를 지속한다.

평평한 화면에 고정되어 재현되는 풍경에 물리적 흐름을 부여하기도 하면서 그 깊이를 의식하고, 평면 위에 구현되는 원근법과 겹쳐진 층위의 공간 감각으로 감춰져 있던 지지대와 지지체가 가지는 미묘한 틈을 주목한다. 그리고 환영적인 납작한 이미지가 감추고 있던 평면의 실제적인 부피와 두께를 감각하고, 평면 매체의 촉각적 발화를 통해 입체 조각에 가지는 질투를 평면의 언어와 방법을 통해 구현한다.

화판이 절단되고 갈라지면서 화판에 당겨져 붙어있던 이미지가 주는 환영(공간감, 깊이감, 물성)은 쓰러지게 되고 납작해진다.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던 지지대와 지지체가 가진 물리적 공간이 드러나게 된다. 이미지가 주는 광활함은 파편이 되어 이곳저곳으로 튕겨져 나가며, 지지체가 가지고 있는 3mm의 합판의 두께, 화판이 숨기고 있던 4cm의 부피를 마주하게 된다. 이 순간 더 이상 지지체와 지지대 그리고 이미지는 평평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입체 조각으로 읽히는 것 또한 아니다. 이 두 범위 어딘가를 떠돌며 향해하게 된다.

빛은 시각적 인식에 깊이를 만들어주지만 깊이를 한순간에 지우기도 하고, 찰나에 깊이를 가진 깊이 없음을 만들기도 한다.

창문을 통해 외부 풍경을 바라보았을 때, 빛과 대상의 배

2020. 12. 5. - 12. 14.

프로젝트룸 신포

열을 통한 공간감을 일시적으로 깨트리는 반사되는 빛이 그렇다. 멀리서 어딘가에 반사된 빛이 반짝하는 순간, 그 전과는 다른 공간 감각을 하게 된다. 창문에 빛이 반사되었을 때도 그렇다. 공간의 순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일시적으로 이것은 깊이를 가진 깊이 없음을 불러일으킨다.

빛은 우리의 눈에 형상을 멎히게 해주지만 반사된 빛은 형상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하얀 순간을 만들고 공간의 잔상만을 남긴다. 하얀 순간은 하얗고 평평한 종이를 잠시 동안 만들어주고, 공간의 잔상은 흥채의 움직임에 따라 잠시 동안 하얀 종이 위에 그려진다. 하지만 그 찰나가 지나면 하얀 종이상 위와 그려진 공간의 평평한 잔상은 사라지고 실제 공간을 인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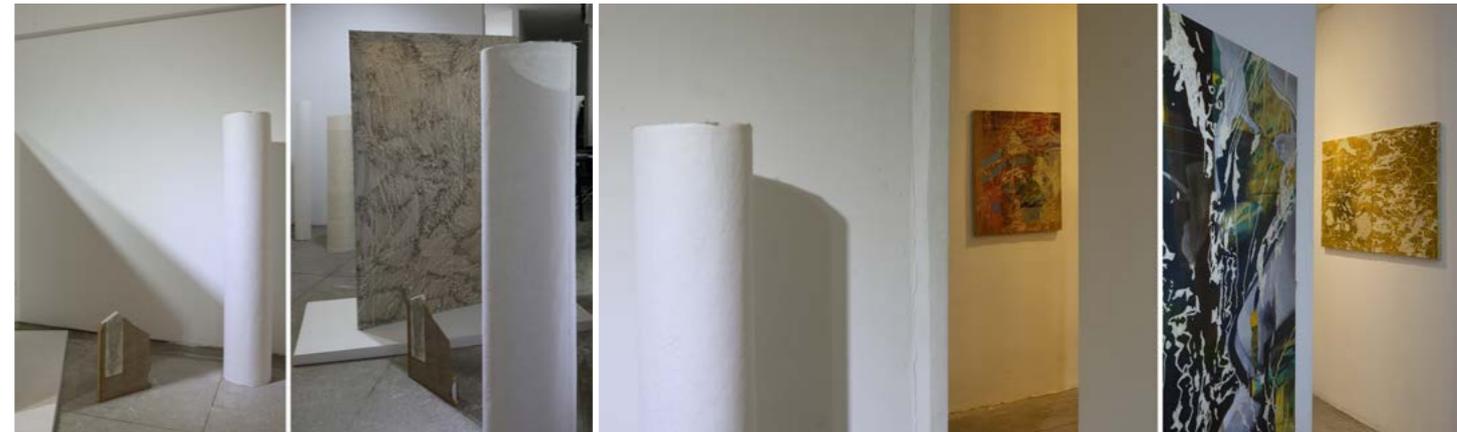
평면 위에 그려지는 이미지와 그 위에 얇은 물리적 두께를 드러내는 것은 깊이를 납작하게 만들고, 다른 의미의 깊이를 만들어낸다.

화판에 얹혀진 안료의 두께와 파어진 화판의 부피는 평면 회화에서 선택되는 재료의 물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재현되는 이미지는 그려진 대상이 가진 물성으로 재현되면서 재료 자체가 가지는 물성은 잠시 뒤로 물러나거나 무시된다. 종이 위에 붙여진 화판과 그 위에 드러난 재료들의 두께, 부피, 질감, 무게는 더 이상 재현된 이미지의 두께, 부피, 질감, 무게가 보여지는 것이 아닌, 무시된 체 재료 자체의 물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끊어내는 행위와 그 결과물은 재현을 하는 행위로 읽혀지는 것이 아닌, 훔치는 행위로 읽혀진다.

프로젝트 장소

전시 공간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4면이 각진 화이트 큐브와 4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각 공간에 놓인 작업들과 전시 공간이 가지는 관계는 미묘한

차이를 가지게 되며, 차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오브제와 공간의 관계를 평면과 공간의 관계로 적용시켜 발현되도록 유도하였다.



신용진

이미지 되지 못한 이미지

COVID-19의 타격으로 미술 교육 사업장을 정리하던 중, 일반 물건들에게서 조형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00미가 무엇인지는 나는 정의 할 수 없으나,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 조형적 미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시성이라고 전혀 없어 아무런 생각조차 안해봤던 오브제들. 프레임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라면 프레임 밖이 실패 일까요? 본인은 관람객의 인지부조화와 작가가 느꼈던 아이러니를 통해 이 묘한 지점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의 관념 속 오답노트를 체크해가며 관객과 인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함께 재고해보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연구만 한 달을 하였는데 전시 전날까지도 매우 초조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미적 체험이었고 이러한 미술 실험 또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려 줄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이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등의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모작가님들에게 진짜 예술을 보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인천 연구소에서 이런 아방가르드 미술을 보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이 제게 매우 힘이 되었고 작업이 호불호가 있을 것이라 예상 했지만 오히려 일반인 관람객 분들도 좋아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여러 조언들과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피드백도 아낌없이 받아서 다음 전시에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2020. 11. 20. - 11. 29.
갤러리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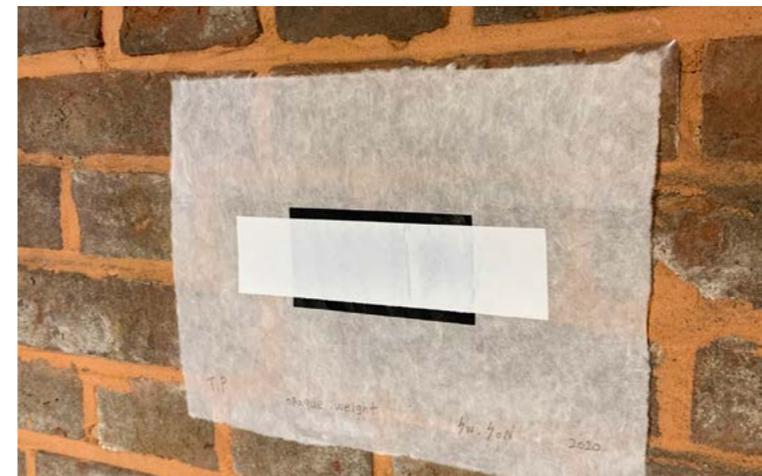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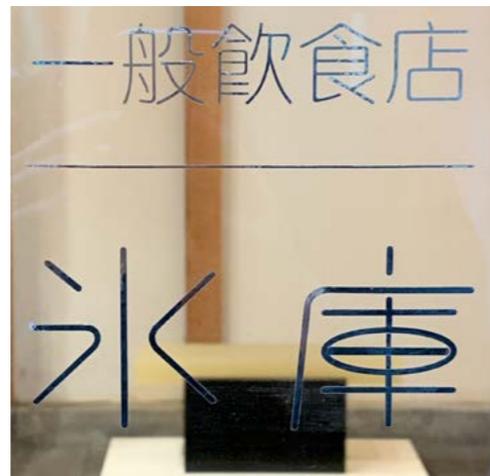
손상우

한지와 합성수지를 활용한 아트퍼니처 전시

안개를 자연의 이미지를 넘어서 정신세계로 확장시켜 사람의 관계에서 부딪치는 소통의 부재, 정신적 교감, 기억 등을 담아 오브제와 가구로 표현하고 싶었다. 작업의 주제로 삼은 안개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한지와 레진을 연구하고 만들어낸 인공물은 반복되는 제작 과정을 통해 기억과 시간성은 겹겹이 풀어진 한지와 레진 사이로 단단한 덩어리에 가두어지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는 우리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불확실한 안개의 형상을 지닌 가구들은 이곳에서 배치되어 사색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2020. 11. 4. - 11. 9.
빙고



김민경

도망가-르 수 없-는 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이 땅 위에서 정상성이라는 중력을 안전하게 받고 싶었다. 나를 누르는 세상의 언어만큼 단단해지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딱딱해졌다. 드러난 뼈를 만지면 안심이 되었다.

물론 나는 실패했다. 뼈는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고 무르고 둥글었고, 날아갈듯 가벼워진 몸은 아찔하게 휘청거리거나 펍 쓰러질 뿐 날아오르지는 못했다. 내가 토해낸 것들은 삼킨 음식과 위장 속 액체일 뿐이었고, 내가 정말 토해내고 싶었던 정상의 언어들은 절대 변기를 내리는 간단한 행동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다. 그걸 뒤늦게 깨달은 내게 남은 것은 텅 빈 몸뿐이었다. 피부는 얇고 허무한 겹질에 불과했고 뼈는 가볍고 무른 덩어리에 불과했는데, 나를 가두는 틀은 여전히 너무도 견고했다.

하지만 나는 도망갈 수 없었다. 도망가지 못했다. 몸으로부터 도망치려던 모든 상상과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자의로도, 타의로도, 큰 사고에서도 나는 도망갈 수 없었다.

도망갈 수 없는 나는, 차라리 죽지 않는 몸과 함께 건강하지 않게 살아내기로 했다. 남의 눈으로 거울을 보지 않고 스스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로 했다. 세상의 언어를 허겁지겁 집어먹고 체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무르고/잘 구겨지고/기능하지 않고/비효율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놓기로 했다.

프로젝트 장소

인천문화양조장은 지역 문화의 독자적 정체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성, 지역성, 자율성을 모토로 하는 대안 미술

2020. 12. 20 - 12. 30
인천문화양조장(스페이스 빔)

활동 공간으로서 지역의 미술 및 문화예술 담론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시스템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며 열린 만남과 생성적 소통을 주선해온 공간이다.

2020년의 마지막 2주. 바람이 들어오는 인천문화양조장에서 추위를 살갓으로 받으며 전시를 하게 되었다. 몸을 외부로부터 감각하기에, 피부로 시공간을 감각하기에 알맞은 시기라 생각해 이 공간을 선택했다.

리뷰

그게 나의 것이다.

이름도, 몸도, 언어도, 수치심도. 다 나의 것이다.

<바로 그 지원>의 지원금으로 흰 벽의 스튜디오를 처음으로 빌려보고, 원하는 전시장을 처음으로 대여해보았다.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선택해 실행하는 일이 얼마나 벅차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 덕분에 연말을 바쁘게 보내고 있다.



조하늘

나 그냥 랩 좋아하는 애 아닌데

코로나 시대, 래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알아보는 사람은 적더라도, 래퍼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다. 나 또한, 싱글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무명 래퍼다. 생활비 쓰기에도 빠듯하지만, 공연뿐 아니라 카페 알바도 하면서 앨범 제작비를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무대는 사라졌다. 종종 함께 공연을 올리던 동료 래퍼들을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대부분 학업이나 알바 등 다른 활동을 병행하면서 래퍼로서의 작업을 이어가던 이들도 있다. 래퍼라는 이름으로 삶을 풀어나가는 저마다의 다양한 일상과 고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동료 래퍼들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 <나 그냥 랩 좋아하는 애 아닌데>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총 6, 7명의 래퍼를 각기 일대일로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함께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제작하려 한다. 이처럼 래퍼들의 저마다의 고유한 삶의 궤적을 기록해봄으로써 코로나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래퍼들의 새로운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번 <나 그냥 랩 좋아하는 애 아닌데> 프로젝트의 마지막 일정인 미니 출간회를 진행하게 될 거북이밥은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 강현구님이 만든 공간이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 거북이밥이 속해있는 석남동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는다. 공간 내부는 예술가의 책장, 지하실, 시인의 사회 사무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중 예술가의 책장은 매일 한분의 작가님을 선정하여 작가님의 작품 혹은 상품을 전시, 판매 할 수 있게 만든 곳이다 한 달간의 전시에서 나온 수익금은 모두 작가님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현재는 코

2020. 8. 5. - 12. 31.
거북이밥

로나 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으며 싱어송라이터 김희진(웬지)님이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요긴한 길목전>을 전시하였다.

<나 그냥 랩 좋아하는 애 아닌데> 출간회는 인터뷰를 응해주신 래퍼 6분과 함께 책을 읽어보고 소감과 인터뷰 이후의 행보를 알아보는 행사로 기획하였고 현재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원래 예정되었던 12월 18일에서 2021년 1월중으로 연기되었다.

리뷰

처음으로 인천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 선정이 되었고 그 프로젝트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많이 낯설기도 하였고 실수도 많았지만 제가 책을 만든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아직 내세울만한 작업이 없던 저를 지원해 주신 인천문화재단 <바로 그 지원>관계자분들과 제 프로젝트에 기꺼이 협조해주신 6분의 래퍼 Zadkiel, On, PoetryMkey, Loaffy Pankyyy, 996, J. born Mandez들과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이것저것 알려주신 화수분제작소 김현우 대표님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조준형

당신의 공간을 점유하라!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점유하는 것은 절망적으로 어렵다. 정착이 어려운 이 사회에서 공간의 물리적 점유를 꿈꾼다. 비록 그것이 지속하는 것은 아니어도 순간적인 쾌락을 느끼고 싶다.

당신의 공간을 점유하라! (Occupy Your Space!)는 정착할 곳을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당사자에게 순간적 개인 공간 사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놀이로 위로가 되고 싶다.

책자는 네명의 점유자가 점유한 공간 기록 사진들과 그들의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이 책자는 앞으로 지속해서 이어나갈 아카이브의 첫 시작이다. 그들의 개인적 사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10월 네 명의 참가자들의 사연을 받고 최초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11월 총 네 번의 촬영을 통해 전문 사진가가 그들이 점유한 공간을 기록하였다. 12월에는 사진 편집과 추가 인터뷰를 통해 만들어진 책자로 그들의 이야기를 아카이빙하였다.

네 명이 점유한 공간은 삼척에 계신 할아버지의 온기를 느낀 삼척동 관광지 안 세탁소부터 알바가 잘린 후 형에게 얹혀사는 7평짜리 주안동 오피스텔까지 굉장히 개인적이고 다양한 사연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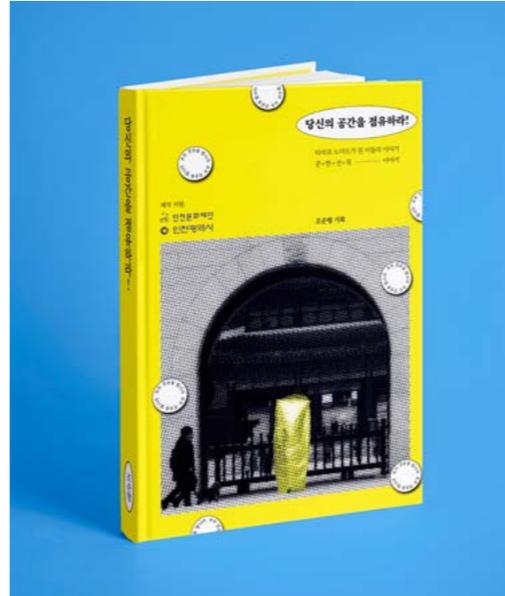
리뷰

프로젝트를 처음 구상할 때부터 당신의 공간을 점유하라! 가 단순히 저의 개인 작업이 아닌 저와 같은 정착의 어려움을 겪는 타의로 노마드가된 이들의 이야기길 담고 싶

2020. 8. 3 - 12. 28

미추홀구 주안동 외 다수

기획 조준형 참여 준+한+선+목



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의 문제로 그런 희망은 무산될 뻔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바로 그 지원>을 통해 저와 같은 타의 적 노마드들을 만나고, 전문적인 촬영을 통해 현장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자 제작도 편집 디자이너의 도움과 고품질 프린트로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더욱 의미 있게 아카이브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계획에만 머무를 뻔한 저의 기획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주신 인천문화재단과 <바로 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한

네 발 달린 노동자 10분 희곡 쇼케이스

공장식 축산 농장 속 동물의 삶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연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 페이크 다큐 형식을 빌려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억압받는 환경에 놓인 동물의 삶을

2020. 12. 19.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참여 박민수, 김승연, 허지은, 박건주, 이강유, 조영빈

들어다보니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감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후원 : 인천광역시, (재)인천문화재단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재)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최합니다



류성국

거리두기X거리예술 프로젝트

공연예술산업이 코로나로 인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대면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가치를 창출' 한다는 공연예술의 본질과 가치를 회복하고 감염병 시대 속에서도 공연예술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로 야외에서 객석 간 거리두기를 통해 대면공연을 진행하였다.

9월부터 거리두기가 가능한 객석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였으며 11월 1일, 17시, 19시 2회에 걸쳐 본 프로젝트의 책임기획자인 마임배우 류성국의 마임극 '빈손으로 드리는 이야기'를 상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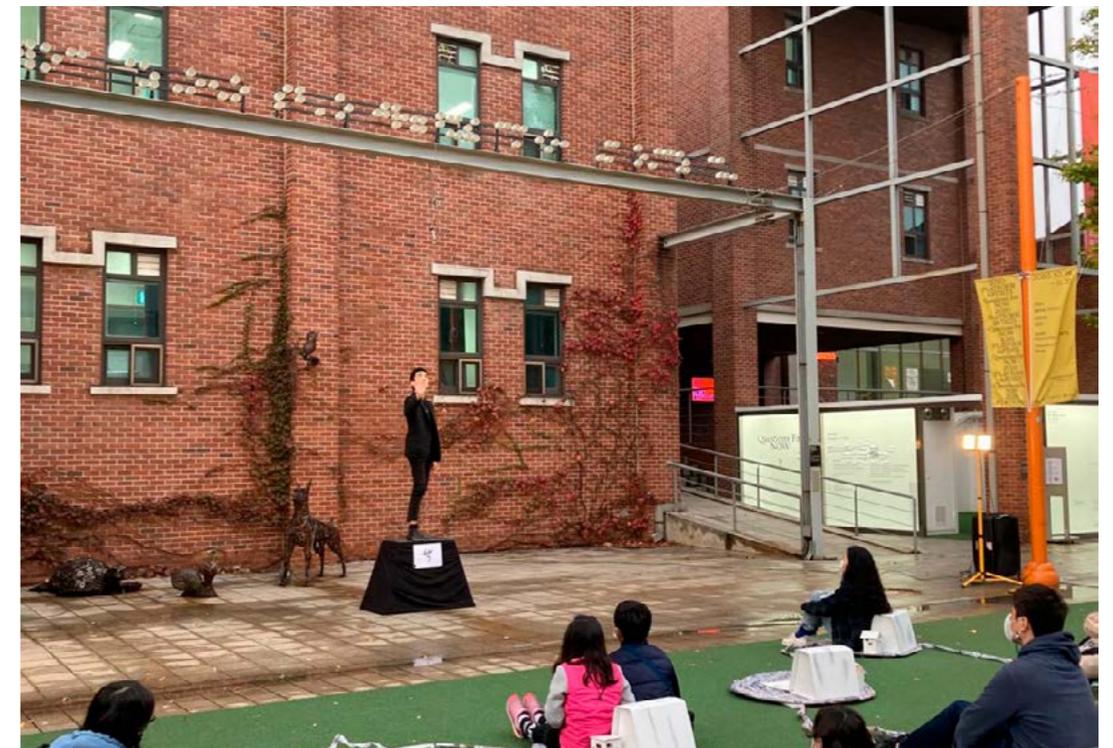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리공연을 시도하여 관객이 안전하게 공연예술을 향유하는 사례가 되었으며 공연예술 종사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었다.

2020. 11. 1.

인천아트플랫폼 야외

기획 및 출연 류성국

예술감독 이화섭 미술감독 왕석청 무대감독 성용훈



이해미

생물멸망 시나리오

생물멸망 시나리오라는 프로젝트는 작가의 어린 시절 기억에서 기인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동네에는 작은 동물이 많았다. 참새, 쥐, 비둘기같이 흔한 동물들이 죽어있는 시체도 종종 목격되고는 했는데 그 시각적 외상은 현재 동물권이라는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씨앗이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작가가 상상한 멸망된 동물들의 미래를 시각화한 작품을 만들었다. 자본이라는 논리에서 사물처럼 다루지는 가축들은 가까운 시일에 과장된 모습의 키메라가 되고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으로 파묻은 동물들은 대형 폭발로 이루어진다. 지금 동물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행위를 거부감이 드는 고발형의 의견 제시가 아닌 작가가 상상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작품을 풀어내 동물권이라는 자칫 대중에게 거부감이 들법한 주제에 좀 더 재미있게 다가갈 바란다.

프로젝트 장소

전시장은 도원역 근처의 '비앙갤러리'로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개방한 공간이다. '송의평화예술시장'에 위치한 장소적 특성이 있다. 전시장은 한 면이 통유리여서 공간에 비해 막상 작품을 걸 수 있는 벽이 많지 않은데 이를 잘 활용해보려 노력하고 있다.

리뷰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공공기관과의 전시였습니다. 게으른 저에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 좋은 지원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계속된 혼자만의 물음 속에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작업 또한 발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하는 사업은 좋은 채찍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 12. 12. - 12. 18.

102호 작업실 / 갤러리 비앙

참여 이권형, 파제, 김지원, 이슬잎



메리코발트(김현지)

메리코발트에게 물어보살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이제는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코로나 블루. <메리코발트에게 물어보살>은 코로나19로 힘든 사연자 두분을 모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석 힐링송을 제작해 선물하고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 배포하는 사업이다.

사업 장소는 인천 중구 개항로에 위치한 공스튜디오에서 진행했다. 따뜻한 느낌을 주는 목조 건물의 다락방인 이곳은 힐링을 주제로 한 이번 사업과 적합했다.

사연을 듣고 즉석 힐링송을 선물하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하여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의 <바로 그 지원> 사업을 알린다. 더불어 메리코발트의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로 자리잡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코로나19로 고민을 가진 두 명의 사연자를 모시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준다. 그리고 즉석 힐링송을 만들어 제작하여 선물한다. 이 과정은 10월 31일 토요일 진행되었으며 이 모든 과정을 담은 영상은 12월 1일부터 편집 과정에 있다.

리뷰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사연자들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주고 건넌 힐링송에 웃음 지으며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연자들에게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임해준 사연자님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음향과 영상 편집에 힘써주시는 제작진에게도 감사드린다.

2020. 10. 31.

공스튜디오 2층

음향감독 김태희 영상감독 이나영 사연자 고희한, 강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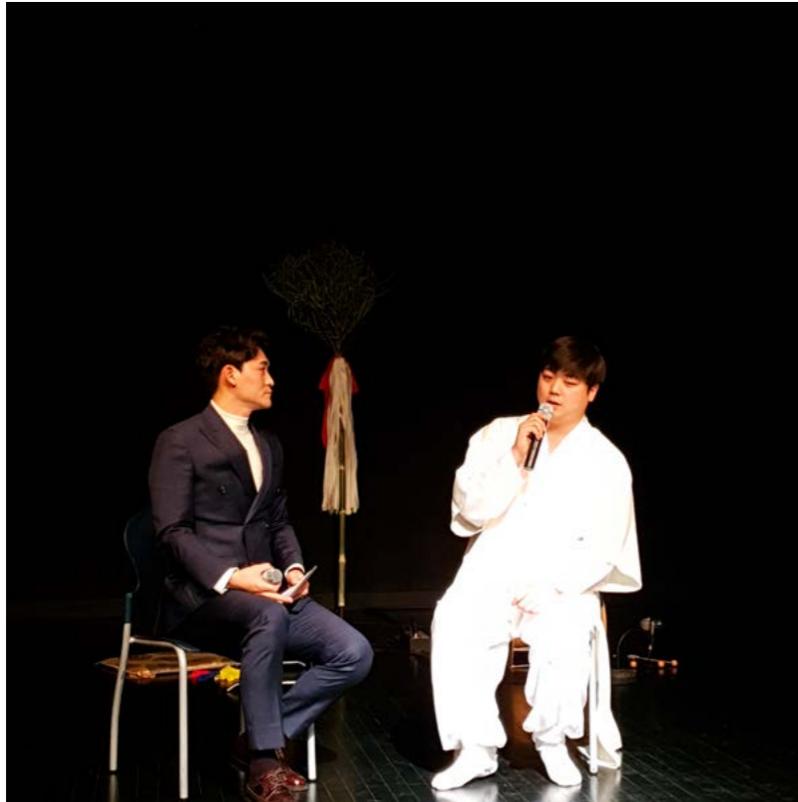
백승철

축원

2020. 11. 14.

부평문화사랑방

참여 백승철, 송가영, 장영진, 최병진, 진수경, 이동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 관객들에게 축원과 덕담을 하고 모두에게 힘이 되고자 작업한 작품이다. 동해안 별신굿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서 그 예술성이 뛰어나고 특히 장단의 즉흥성에 있어서 전통 타악에 최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을 무대화시켜 여러 다른 장르의 음악들과 함께 작업해본다면 전혀 다른 색깔의 전통공연이 만들어질 것이다. 관객들에게는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을 제공하고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음악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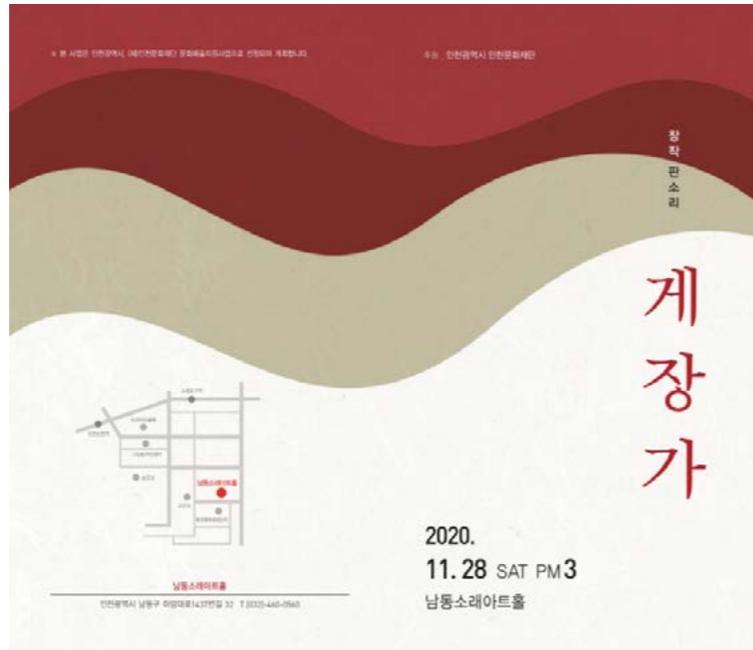
<바로 그 지원>을 통해 그 동안 목표로 삼았던 첫 독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항상 단체의 발표회만을 준비하다가 이제 홀로서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품부터 음향, 조명, 무대장치까지 놓친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컸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거운 분위기의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관객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가영

‘시’ 로 보는 판소리 ‘See’

2020. 11. 28.
남동소래아트홀



판소리는 일찍이 세계문화유산인 유네스코에 오를 만큼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서 인정한 우리나라 대표 전통예술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중국의 전설, 어려운 고사성어, 사설의 대부분이 한문인 것 뿐 만 아니라 이제는 현대인들이 공감하기 어려워져버린 더없는 호, 절개, 충심 등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어려운 전통예술이라는 꼬리표를 타파하기 위한 판소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시도 함께 접할 수 있는 문학으로 가득 찬 공연을 만들어 볼까합니다. '시와 판소리', '문학과 전통예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융합하여 재밌고 대중적인 판소리를 만들어 관객과의 벽 없는 공연, 진짜 현대판 판소리를 만들고 싶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장소는 전통판소리 공연과 다르지 않게 진행하고 싶

어 작은 소극장에 별다른 소품 없이 오롯히 소리와 소통을 기반으로 준비해 진행했습니다. 또한 현대시 「스며드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각색한 창작판소리 <계장가>는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제대로 살려 각본을 썼기 때문에 흥미로운 사설을 듣는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리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본이 너무 재밌다고 했습니다. 현대시 '스며드는 것'에서 이번 작품의 일부만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고 어렵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서 관객과의 소통도 얻어야 했기 때문에 각본에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재밌게 들었고 앞으로 계장 못 먹을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니 공연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애니웨어(장효강)

안녕. 산곡 1동

부평의 산곡동과 부평동 일대는 1939년 중일전쟁의 군수기지 조병창이 생겨났고 광복 후 예는 미군기지로 이용되었다.

반세기가 넘게 독특한 역사를 보존해온 산곡1동 공간과 사람들의 흔적들이 재개발로 이제는 추억 속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모습을 영정사진으로 남기듯, 산곡1동 마을 형체는 사라질 지라도 이번 예술사업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기억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산곡1동 영단주택지는 도심 가운데 81년간 그 일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보기 드문 동네이다. 한 때 제2명동이라 불려 유행의 시작점인 활발한 동네였지만, 지금은 재개발 진행으로 하나 둘 떠나고 몇 어르신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산한 동네이다. 중일전쟁의 군수기지 조병창과 영단안녕 산곡 1동 주택지가 생겨나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주 거주지로 사용되어 왔다가, 광복 후에는 미군기지로 사용되면서 양공주들도 많이 세 들어 살던 아픈 역사가 공존하는 장소이다.

20년간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정말 1년 남짓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십 년간 산곡1동의 자리를 지켜온 봉다방 할머니, 미용실 할머니, 백마옥 커피집 할머니, 보살님의 추억 이야기를 따라 산곡1동을 걸으며 느껴지는 감정들을 움직임으로 표현하여 프로젝트 '안녕, 산곡1동' 댄스필름을 제작하였다.

2020. 11. 16. - 11. 30.
인천시 부평구 산곡1동 영단주택지

리뷰

산곡 1동의 첫 인상은 차가웠다. 하지만 곧 마을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따뜻함에 놀란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재개발을 앞두고 아쉬움과 함께 기분 좋게 받아드릴 준비가 되신 모습들을 보며 짝하고 인상 깊었다. 여유 있고 행복해보이던 그들의 웃음 여운이 아직도 마음속에 가득하다.



The background is a solid light pink color. It features several decorative elements: a large white circle in the center-right containing the text; a smaller white circle to its right; a small white circle below the large one; a set of three concentric white circles at the bottom center; a set of three purple zigzag lines in the top-left; another set of three purple zigzag lines in the bottom-right; a thin white diagonal line in the top-right corner; and a thin white diagonal line crossing the large circle. The text is in a bold, white, sans-serif font.

8월 바로 그 지원



8월 <바로 그 지원> 청년예술가

no.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1	문방구 양상블(남달리)	동네에서 만나는 문방구 양상블
2	김미선	놀이터에서 놀자!
3	플라나리아(박지현)	플라나리아 렌즈
4	신연주	새벽과 아침사이, 인천의 뉴 노멀.
5	온고지신(전예총)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공존(共存), 공생(共生)
6	공지선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made of breath
7	양은경	단편영화 <도채비>의 낭독영상
8	김예찬	병풍 속 로댕미술관
9	월간서커스	[고금-古今] 전통과 현대 '서커스의 만남
10	김나현	동시대적 시각 : My Best Always,
11	경기남부재즈(임태웅)	경기남부재즈 정규3집 "어른이" 타이틀곡 "아근" 뮤직 비디오 제작 프로젝트
12	이준경	반려식물 장례식 - 그들과 이별하는 방법
13	유사음악X살친구(김현욱)	오페라 재구성 창작 실험 <마술 같은 이야기>
14	정영록	춤추는 외교관

8월<바로 그 지원> 프리젠테이션 데이

일시 : 2020. 8. 27.(목) 1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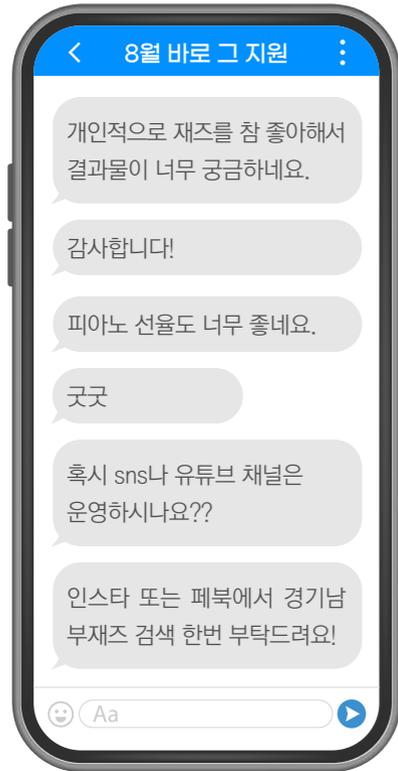
방법 : 사전 녹화영상 발표

진행 : 오픈채팅방

목적 : 8월<바로 그 지원> 심의·선정 및 동료예술가 교류의 장



오픈채팅



8월<바로 그 지원>
오픈채팅방 글 발췌中

넵 팔로우할게용!

영상 넘 좋아요~~!

오 작업물 엄청 퀄리티있어 보여요

다양한 예술가분들이 계셔서 발표영상이 공연과 전시를 보는것 같아 좋네요~

영상 너무 잘만드셨네요★★

와...

경험하지 못한 예술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상 보는것만으로도 많이 배우고 느끼는거같아요. 다같이 작업할수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 좋겠어요

오!!!! 너무 좋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랑 예술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신기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되는 것 같아요~!

오 멋지다..

노래 너무 좋네요

노래좋다..

목소리 예쁘고 두곡 다 음색 좋네요~

노래 너무 좋네요!!!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오오...

공연까지 멋져용!!!

준비 열심히 하셨네용

잘봤어요 !! 다섯명의 예술가 응원합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영상 진짜 잘만드셨네요

누구시오 ㅋㅋㅋㅋ 너무 재밌네요 웹드라마 너무 재미있을거같아요

감사합니다 ㅋㅋㅋㅋ

재밌겠네요 ㅋㅋ

완전 재간둥이들이시다..

심의총평

<바로 그 지원>은 청년예술가들의 지원사업 진입장벽을 낮춰 그들의 실험적인 예술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바로 그 지원>은 총 3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심의위원회는 그 중 14건의 지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청년 예술가의 새로운 예술적 시도, 참신성, 그리고 예술철학이 돋보이는 사업이었습니다.

8월 <바로 그 지원> 지원신청건 중 코로나 시대에 청년예술가들의 절실하고 실질적인 고민이 담긴 작업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예술가들이 오랫동안 탐구해 온 작업을 현재의 상황과 예산규모에 맞게 변경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예술 프로젝트로 발전된 작업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성, 장르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상과 삶에 집중한 주제가 확연히 드러나는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프로젝트 장소 선택의 어려움과 지역적 연계성의 한계가 느껴져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인식과 깊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시도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청년예술가의 실험성, 예술성, 독창성, 지역성을 중심으로 고려했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계획이 충실한 작업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예술성이 조금 미흡한 작업이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공동체에 예술이 개입해 공동의 삶을 환기하는 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8월 <바로 그 지원> 심의는 지원신청자들의 사전 녹화 영상발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차분하게 프로젝트의 내용을 전달하는 청년예술가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심의방식은 지원신청자들의 인터뷰 심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영상자료를 통한 심의방식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지원>에 지원한 청년예술가들의 힘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청년들의 꾸준한 예술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그들의 예술적 삶을 기대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심의위원

- 이승목(뮤지션)
- 정진세(연출가, 극작가)
- 홍태림(미술비평가)

프로그램어

- 권근영(연출가)
- 박가인(시각작가)
- 박준석(시각작가)
- 윤대희(시각작가)
- 이권형(뮤지션)

문방구 앙상블(남달리)

동네에서 만나는 문방구 앙상블

우리는 많은 음악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라이브 음악공연, 음악회 등은 마음먹고 찾아가야 할 것 같고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우리 일상에 친근한 악기들을 사용해 친근한 장소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래들, 또는 여러분에게 생소한 저희 자작곡이지만 한번 들어도 따라할 수 있을만한 중독성 있는 노래들을 연주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의 공간들에서 가볍게 산책나와서 편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연, 우리가 학교에서 한번쯤은 연주했을법한 익숙한 교육용 악기들을 이용해서 더욱 친근한 음악공연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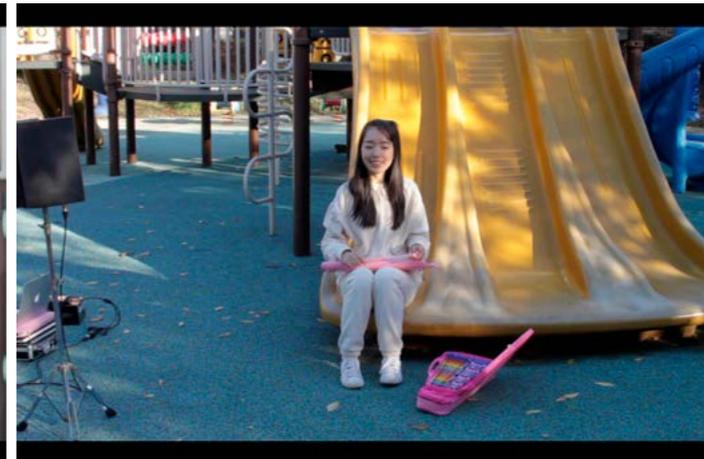
총 3회 우리결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친근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공연을 준비했는데, 결국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대면공연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 바꿔서 우리 일상의 공간들을 소개하고 그 공간과 어우러지는 연주영상을 3편 제작했습니다. 어떤 곡과 공간이 가장 대중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선곡하고 만들었습니다.

2020. 12. 28. (영상 공개)

인천 불로지구1호 어린이공원, 석남동 꼬마또래, 작업실

유튜브 [남달리] 채널

참여 남달리, 이성필, 정희준



김미선

놀이터에서 놀.자!

어릴 적 놀 친구들과 모여 놀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놀이터.

약속이라도 한 듯 늘 같은 시간에 모여 시간가는 줄 모르고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그때 놀이터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공간이자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놀이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 나의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던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야 놀 수 있는 키즈 카페가 아닌, 네모난 틀 속에 갇힌 핸드폰 속 가짜 세상이 아닌, 진짜 자연과 어우러진 공짜 놀이터가 다시 그들이 스스로 찾는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이들의 놀이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이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뷰

이번 <바로 그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한 공간인 놀이터에서 차별 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극장이 아닌 놀이터라는 새로운 곳에서의 공연이 첫 시도였기에 어렵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배우 스텝들과 잘 준비해서 관객을 만나는 순간에는 모든 걸 잊고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020. 11. 15.
석남체육공원 내 놀이터
배우 조민영, 이민재, 김미선 스텝 김성미



플라나리아(박지현)

플라나리아 렌즈

잘 응축된 영상의 모든 요소는 하나의 목소리로 집약된다. 보는 이의 시선은 부촉을 받으며 안정된 이미지 위를 걷는다. 안정된 이미지 밖의 세상은 그저 배경이 된다.

플라나리아 렌즈는 영상의 서사를 깨뜨리고 시선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다. 응축되지 않은, 산발적인 형태의 발화는 불친절하지만 시선의 구속이 없기에 따뜻하다. 작업자들은 수평적 서사의 흐름을 피하고 전체를 이루는 부분의 요소에 시선을 던지며 그들의 새로운 관계맺음과 파편적인 감각에 집중한다. 머물 곳 없는 시선은 또 다른 시선을 증식하고, 그 속에서 정답이 없는 질문과 해석을 만들어간다. 그렇게 증식하는 시선들은 요소들이 이루는 틈에서 자신만의 발화를 이어나간다.

촬영 공간을 3d모델링으로 구현한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영상을 상영한다. 조각들을 조립하는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는 홍보를 참여형으로 인천에서 진행한다.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를 통해 참여자가 포스터의 디자인을 변형시킬 수 있으며 인천시민들의 참여가 더해지며 하나의 포스터가 완성된다.

두 명의 작업자가 한 공간에서, 한 명의 배우와 함께 각자 영상을 촬영한다. 한 컷에 15초, 각각 15컷 씩. 그러나 둘은 서로 무엇을 촬영하는지 공유하지 않는다. 서사를 깨뜨리고 분산시키기 위함이다. 한 달 동안의 촬영을 마친 후, 둘은 30개의 영상 조각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립을 한다.

각각의 영상 조각들과 조립된 조각모음은 www.planaria.house.com에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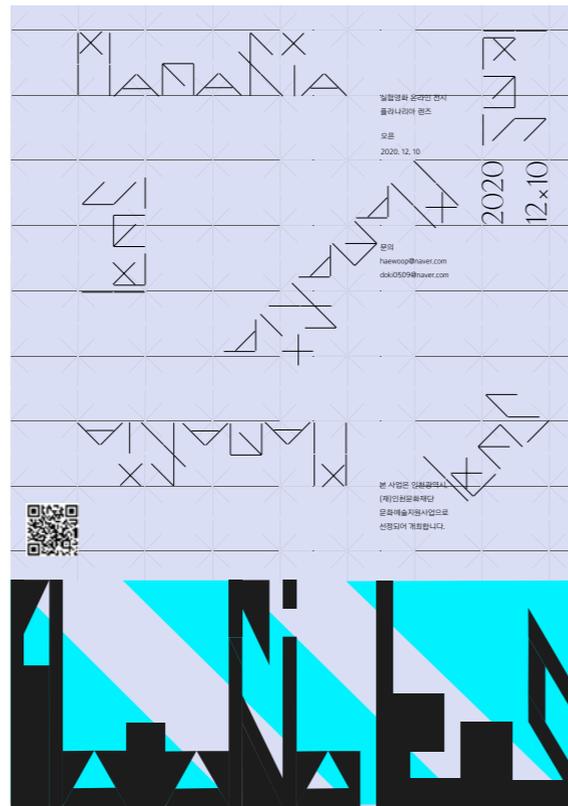
2020. 12. 10. - 12. 31.

온라인 사이트 www.planaria.house.com

참여 박지현, 박해우, 한혜지

리뷰

<바로 그 지원>을 통해 하고싶었던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천의 좋은 문화공간도 알게되고, 새로운 지역에서 작업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신연주

새벽과 아침사이, 인천의 뉴 노멀

뉴 노멀. 얼굴을 마주보기보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새로운 시대.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 2m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심함이나 냉담함이 아닌 배려로 인식하는 오늘 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화했는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12명의 인천 시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희곡의 형태로 기록하고자 했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연극을 집필하는 것이 초기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현실을 연극으로 제공하는게 불필요하다 느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도 아닌 희망이니까.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공고를 올리고, 12명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SF 연극을 집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이라는 재난 속에서 우리가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 인천과 서울을 매일 왕복하는 직장인에서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혈액을 검수하는 대학병원 직원까지. 대면으로 때로는 전화 통화로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삶의 형태를 마주할 수 있었다.

제목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인터뷰에 참여한 윤채원님의 대답에서 착안했다. 질문은 이것이었다. “코로나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녀의 대답은 이랬다.

“시간과 정신의 방.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멈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시간은 분명히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과 정신의 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2020. 12. 31.(도서 출판)
인천 관내



온고지신(전예총)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공존(共存),
공생(共生)

2020. 12. 29.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작곡 전예총

가야금 김소민 피아노 백지민 거문고 이지수 클라리넷 홍정민



온고지신(溫故知新)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 것을 알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로, 한국의 전통음악과 서양의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는 연주 단체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공존(共存), 공생(共生)은 ‘동서양의 음악을 어떻게 한 작품 속에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두 가지 선율이 공존할 때, 그들은 각각의 색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공생 관계에 놓이게 된다. 여러 가지 음악의 ‘공존’, 그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겨나는 ‘공생’에 귀를 기울이며 감상하길 바란다.

프로그램

- 1) 점, 선, 면 - 거문고 이지수, 첼로 전예총, 클라리넷 홍정민, 피아노 백지민
- 2) 물 - 가야금 김소민
- 3) 불 - 거문고 이지수
- 4) 우연 - 가야금 김소민, 거문고 이지수
- 5) 그림자 - 가야금 김소민, 첼로 전예총, 클라리넷 홍정민, 피아노 백지민



공지선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made of breath

예정된 폐기에 익숙해진 우리는 무엇이든 쉬이 대체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상품과 광고들은 소비의 지속 영원하다. 도구로 소비되는 인간 역시다를 바 없다. 구인(求人)을 원하는 소비자는 쏟아지는 서류 중, 용도에 가장 맞는 도구를 구매하여 자리를 채운다. 자리는 실존하나 인물은 허상이다. 쉽게 대체되는 자리의 인물은 이미 수십이다.

상실은 때론 선명하게 다가온다. 벽면에 빼곡히 들어선 전자 빛들 사이 빈자리, 의미를 변형시킨 역할의 부재, 곧 대체될 그 자리가 모두의 자리처럼 느껴진다. 내세울 만한 물건, 서비스 등이 빼곡히 적힌 글자들은 매일 밤 제 소임을 다 한다. 글자의 섞임은 지나치게 찬란하다.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아주 단순한 말장난들은 역사가 오래됐다.

관심이 아주 가벼운 자리, 불법이란 단어가 무색한 직접적 표현, 착취의 기본 단위. 하트(♡)로 대체된 이음(ㅇ)은 언급하고자 하는 인간의 소비와 거래를 다소 직접 대변한다. 때론 빠르게, 혹은 느리게 빛과 암을 반복하는 저 형태는 누군가의 숨이다.

나는 도시의 반짝이는 벽면에 대체된 자음 하나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쉬이 대체되는 소모적 인간의 명(命)과 곳곳에 만연한 인간 매매의 현장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생을 표현할 때 쉬이 숨을 언급한다. 호흡은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이다. 벽에 걸린 간판들 사이 불이 꺼진 단어 하나로 인해 상실된 단어들의 의미는 오래 유지되기도 하고 금세 대체되기도 한다. 그 반짝이는 회연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언급할 수 있을까.

길거리의 벽면을 장식하는 화려한 간판들은 내게 어떠한 '자리'처럼 느껴졌다. 각자의 위치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2020. 11. 21. - 11. 30.

웅노

바를 가장 화려히 은유하는 그 글자들은 모두가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을 의미하는 덩어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별적인 개체라는 걸 증명하기라도 하듯 시종 일관 자신의 소임을 다하다 소멸 직전 쉴 새 없이 반짝이며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번쩍이는 불빛은 이내 잦아들고 소멸하여 어둠을 머금지만, 그 직전 숨이 차 혈떡이는 누군가의 숨처럼 발광하고 발악하는 것이다. 금세 교체될 자리, 혹은 비어있을 자리 그 공간에서의 순간은 누가 기억해줄 수 있을까.

첫 번째 물음에서 시선을 조금 이동해 해보니 그 자리의 수많은 하트가 눈에 띈다. 불법이란 단어를 무색하게 만드는 변종, '방'의 이음(ㅇ)이 하트로 변하는 순간 노래방의 단순한 기능도 하트의 따뜻한 의미도 모두 퇴색된다.

나는 위의 생각들로부터 출발해 도시의 벽면, 그리고 발광하는 어느 부분들을 작업에 접목해보기로 했다. 도구로 사용되고 쉬이 교체되는 우리의 자리, 매매되는 사람들, 변종을 거듭하는 현장과 소유.

관객들은 공간에 방문하여 직접 무의미한 선택을 하고 하트 조각을 소유하며 작품에 에탄올을 뿌려 이미지를 사라지게도 한다. 단순히 보는 전시가 아닌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전시를 연출함으로 그들이 현장의 외부에서 얼마나 무관심해 왔는지를 체험케 하고자 하였다.

프로젝트 장소

웅노는 개항장에 위치한 1939년에 지어진 작은 벽돌창고입니다. 광복후 주택으로 개조되어 사용되기도 했으나 좁은 골목길과 노후화로 상당기간 사람의 출입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작가들의 제안으로 전시를 열게 되었고 다양한 공간실험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리뷰

흔적이 자리한 공간에 또 다른 흔적을 새기며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열흘 남짓, 공간에 잠시 머문 내 작품들은 해체되어 누군가의 손에 들려 나가기도, 지속적으로 변형되기도 하였다. 개인의 삶은 세상의 통계에 묶여 이용되고 소멸한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이야기를 이뤄냈으며 그 삶이 세상의 일부분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사회는 집중하지 않는다. 조소받는 저항에 대하여, 언급 없는 영향에 대하여, 소멸하고 판매되는 물성적 인류의 삶을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음 한다.



양은경

단편영화 <도깨비>의 낭독영상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단편영화 <도깨비> 낭독영상을 통해 마음 내어줌에 대해 드러내고 그것이 관람객들의 각자 삶 속에 어떤 모양으로 존재해왔는지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편영화 시나리오 <도깨비>에 대하여

“설화나 신화는 괴물들, 기상천외한 기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기호들은 민중의 상징이자 실제 현상의 상징이다.”- 아스거 온

저는 주로 현대. 그러니까 '자리 내어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한국의 '도깨비' 형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도깨비는 도깨비의 전라도 방언입니다. 도깨비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상상되나요. 한국의 도깨비는 15세기 문헌 <석보상절>에 처음 등장해서 실록에서부터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지금까지도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시간 살아남은 도깨비라는 기호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민중의 상징은 무엇이였을까요. 특히 일본의 '오니'와 중국의 '독각귀'와는 다른 한국의 '도깨비'는 장난스럽고 친숙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도깨비불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 길가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씨름 시합을 하자고 장난을 붙이고, 도토리묵이나 모시송편과 같은 소박한 음식에 매달렸습니다. 이런 도깨비의 이야기들을 수집하면서 스스로없이 인간 앞에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도깨비를 통해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든 사람, 상황 그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희망에 대해서 그리고자 합니다. 현대의 희망이란 사회에서 점점 흐릿해져가는 마음 씀씀이. 서로 마음을 내어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 걸어온 말에 흔쾌히 응할 수 있는 상태와 순간, 그리고 그 어떤 말 걸어움. 그런 사람을 만나는 순간

2020. 9. - 12.

온라인 사이트

연출 양은경 제작 성지혜 촬영 김진영 조명 장석현

사운드 손상범 낭독 이보희 비디오아트 이지관

을 시나리오에 담았습니다.

낭독의 방식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예술 작품의 가치는 보는 이에 달려있다. 작품이 관객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헬러 본즈, “민속 예술, 공상과학 및 회화의 쟁점”, 아스거 온: 불안한 반란군 (코펜하겐 내셔널 갤러리, 2014), 126.

이 시기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단편영화의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그대로 낭독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낭독이 말하는 '없음'의 미학을 통해 관객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연출 의도를 화면에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표현들을 털어내고 느슨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여백 사이에서 관객 스스로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저자가 소멸되고 새로운 독자가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그 순간의 즐거움. 수많은 해독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프로젝트 내용

단편영화 <도깨비> 낭독영상은 정신질환을 가진 민아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자신의 연주공간을 잃은 해진의 마주침에 대해서 그립니다. 환청을 듣고 환각을 보는 민아가 어느 날 기묘한 연주와 함께 도깨비불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정신질환의 낙인들로 인해 그것들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연주 뒤에는 해진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해진은 자리를 잃고 떠돌다 민아가 있는 공간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해진은 같은 공간에 있는 민아를 눈치 채지 못하고 민아는 해진을 소리로 듣지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클라이막스이자 마지막은 이



둘이 마주치는 순간에 대해서 그립니다.

이 낭독영상은 2채널 비디오로 구성되며 한 쪽에는 전체 시나리오를 낭독하는 영상이,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이들이 머무는 인천이라는 공간을 촬영하여 디지털 노이즈를 발생시킨 이미지들(도깨비불)이 함께 상영됩니다.

프로젝트 일정

- 2020.9~10. (시나리오 완고 및 장소 섭외/실연자 섭외)
- 영화를 위해 준비한 시나리오를 낭독을 위한 텍스트로 수정 2020.10~11. (프리프로덕션 마무리, 리허설 1회)
- 촬영을 위한 장소 섭외 및 전시를 위한 장소 섭외
- 시나리오 완고
- 인천배경 촬영 및 미디어 아트 협업
- 낭독영상 촬영 (12월로 연기) 2020.12 (편집 및 후반 작업/발표회)
- 전체적인 일정 연기
- 티저 형태의 웹사이트 우선 공개 후, 12-1월 중에 발표회 진행 예정

프로젝트 장소

티저 형태의 2채널 영상을 웹상에 우선 공개합니다. 2021년 상반기 중 인천의 전시 장소를 섭외하여 전시합니다. 영상 표현은 털어내고 공간음(Ambient Sound)과 인천의 공간 이미지들에 디지털 노이즈를 발생시킨 도

깨비불의 이미지들로 채웁니다.

대부분의 프리프로덕션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2021년 상반기 인천의 공간에서 전시를 진행합니다. 또한,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난 웹 공간에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리뷰

2020년 8월 지원 시점부터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발길이 끊긴 영화관과 전시장의 경험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고 이런 마음을 경유하며 '마주침의 순간', 그런 공간의 경험이 사라져가는 것과 그로인해 새로 생겨나는 감각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반복해왔던 '도깨비라는 소재를 이 시기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 변화시켜 드러내고자 낭독의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그저 텍스트를 낭독을 할 뿐인 낭독의 '없음의 미학을 통해 관객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붙들고 소환해내는 과정을 만듭니다. 수많은 과정들이 축소되었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에 대해 현대의 희망에 대해, 그러니까 오늘 문을 두드릴 뿐이지만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 문을 열 것이라는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김예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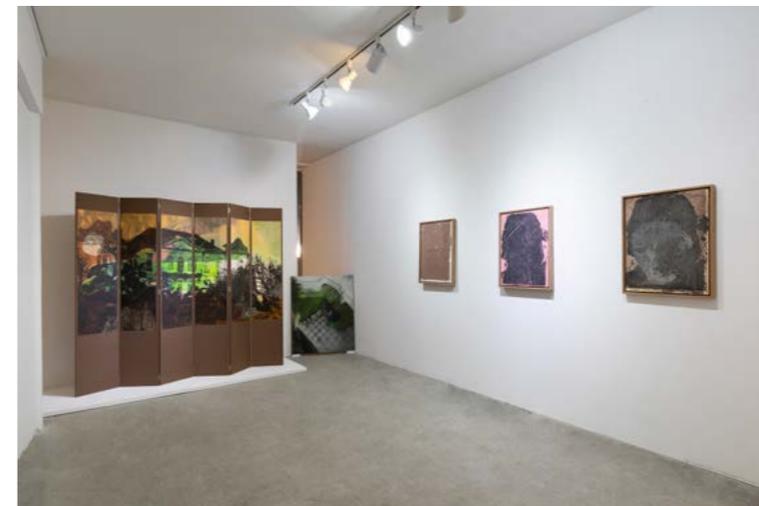
병풍 속 로댕미술관

'어떤 연유에서인지 내가 경험한 몇몇 역사적 장소나 대상들은 내 눈과 마음에 포착된다. 그리고 그들은 찢찢한 미완결의 무엇으로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적 대상을 향해 생성된 심상은 현대와 집단이 수용한 선별적 정보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내가 이곳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일까. 과연 미래에도 이곳은 지금처럼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까? 혹 새로운 정보가 발견돼 이곳의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을까? 어쩌면 병풍처럼 존재감없는 배경이 되어 있진 않을까? 우리는 미래의 이곳을 알 수 없다. 그 씩씩함과 함께 다시 대상을 바라본다. 그곳에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중첩되며 충돌하고 있었다. 나는 이 지점을 회화로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다 그려진 작품의 모호한 형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질문을 만들어 낸다.

리뷰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짧은 전시 기간 뿐이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담겨있습니다. 전시장에서 관객들과 함께 그들의 감상과 저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바로 그 지원>을 통해 좋은 경험을 하게되어 감사했습니다.

2020. 12. 19. - 12. 28.
프로젝트룸 신포



월간서커스(김종환)

[고금-古今] 전통과 현대 '서커스'의 만남

서커스배우로서 무용, 연극, 전통연희,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과 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인천문화재단의 아티스트 레지던시(강화지역) 프로그램을 참여해 여러 장르의 작가들을 만나 교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을 함께 투어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 때 강화풍물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공간을 보자마자 작년 말부터 사전작업을 진행하던 전통연희자와의 작업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투어를 마치고 시장의 상인회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어 구두로 공간사용의 협조를 구했으며 다른 상인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꼭 우리 시장에서 공연을 해줬으면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청풍이라는 강화에 자리잡은 청년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의 관계자로부터 이번 사업 진행 시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기로 약속을 얻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강화지역의 주민들에게 예술향유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이번을 계기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곳에서 펼쳐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군청의 장소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고 문화재단과 대책회의를 통해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송출로 발표방식을 변경해 진행했습니다.

[고금-古今] 전통과 현대 '서커스'의 만남은

1. 농주(공), 족방울(디아블로)와 같은 전통재주들로 이루어진 보부상인의 전통기에공연과,
2. 한국전통무용의 움직임과 현대서커스의 대표 오브제인 씨어힐의 만남,
3. 전통연희자의 장구연주에 맞추어 진행되는 현대서커스 공연자의 대형 서커스큐브 공연으로 이루어진 유희

2020. 11. 23.

부평역사박물관공원

유튜브 [월간서커스Monthly_Circus] 채널

배우 김종환 재주꾼 이학인 안무가 조경철

와 함께 전통과 현대의 것들을 조화롭게 버무린 맛깔난 공연작품입니다.

리뷰

가장 큰 사업실적은 월간서커스의 새로운 대표 레퍼토리의 작은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강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위해 기획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이 부분을 실행하지 못한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향후 1인 국악 연주(루프스테이션 이용)의 음악적 질을 높이기 위해 음향장비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직접 쓴 대본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드라마터그와 연극 연출과의 협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창작을 출발로 내년 한해 기술적 내용적 향상을 도모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커스 콘텐츠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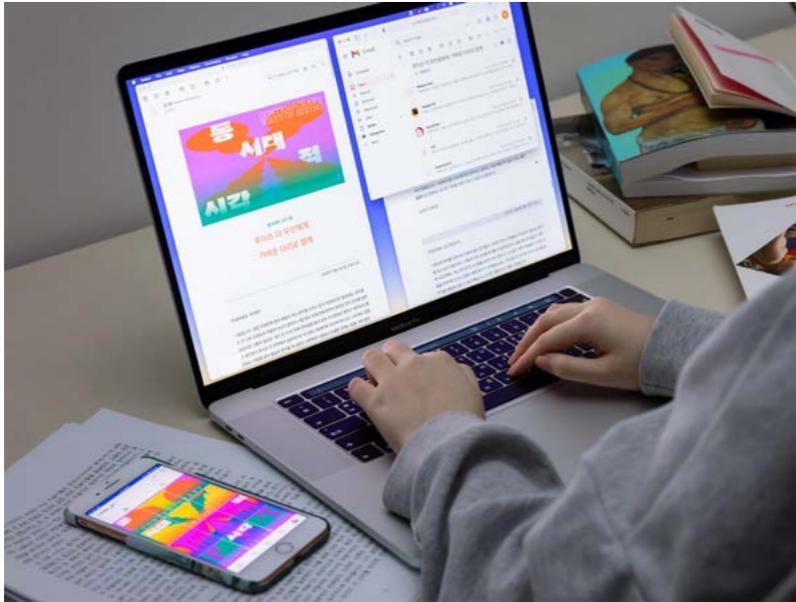
김나현

동시대적 시각 : My Best Always,

2020. 12. 12. - 12. 31.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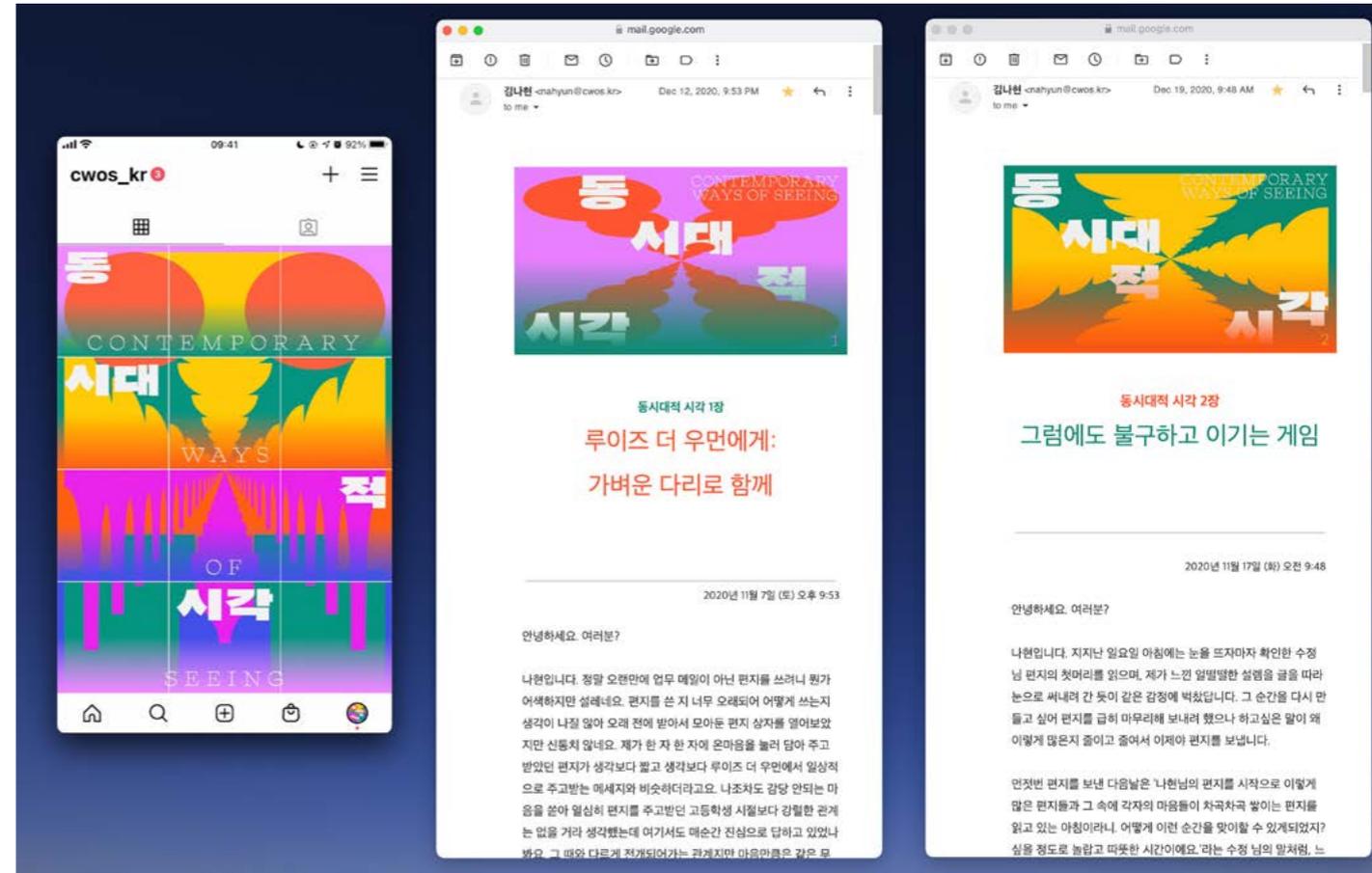
참여 김나현, 우유니, 오연진, 구구(들불), 이승연, 이주영



<동시대적 시각Contemporary Ways of Seeing>은 동시대적 시각을 페미니스트적 시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워크숍과 영상 그리고 메일이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대 여성들과 달고, 얘기하고, 기록하고자 합니다.

<동시대적 시각 메일링 프로젝트>는 페미니스트이자 여성 미술가인 작가가 동시대 여성 미술가 동료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고민한 기록입니다. 메일은 페미니스트이자 여성 미술가인 작가가 소속되어있는 여성 미술가 커뮤니티 '루이즈 더 우먼의 동료들과 나누는 편지로 시작합니다. 편지를 통해 페미니스트/여성 미술인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가시화하고 여성 창작자 혹은 여성들이 힘을 얻어 자리를 지키는 근거가 되고자 합니다.

영상 파트는 Zoom을 통해 진행한 온라인 워크숍에 대한 영상 기록입니다. 영상이 담고 있는 온라인 워크숍에서는 참가자와 함께 무엇이 동시대적 시각이 될 수 있을지 공부하고, 우리가 미술에 '동시대적'인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시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워크숍에서 참가자들과 나누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상은 예술 생산자/소비자인 참가자들이 기존의 규범적 미술사 역사에서 배제되어온 "대안적"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동시대적 시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장면, 자신이 정의하는 동시대적 시각으로 직접 명화를 패러디, 차용하여 다시 만들어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재즈(임태웅)

2020. 10. 6. - 12. 31.

인천 전역

경기남부재즈 정규3집 《어른이》 타이틀곡 〈야근〉 뮤직 비디오 제작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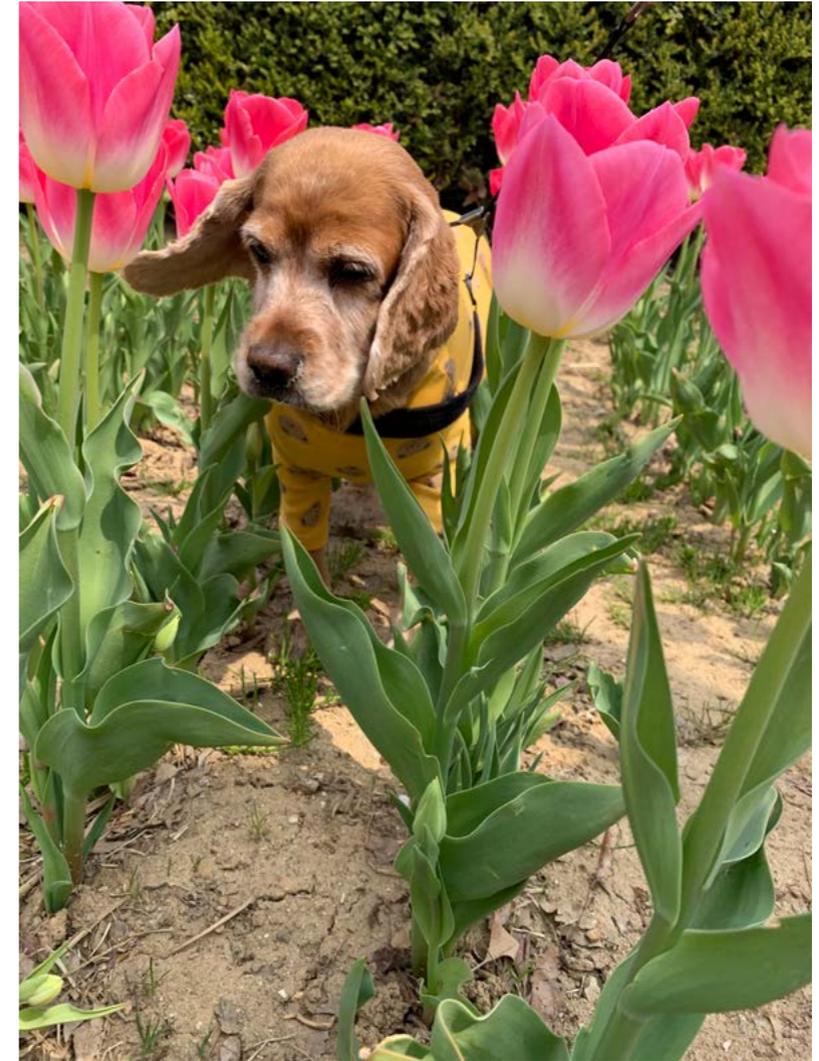


인천의 여러 모습에서 영감을 받고 작곡한 경기남부재즈의 타이틀곡 〈야근〉의 뮤직비디오를 제작.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려 합니다.

인천 전역, 곧 발매를 앞둔 경기남부재즈의 정규 3집 《어른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경기남부재즈만의 해학과 풍자로 우리의 삶을 노래한다.

리뷰

이 회색 바다에 넘실대는
저 일렁이는 빛을 봐
모두들 내일이 없는
오늘을 불빛에 녹여 하루를 만드네
내가 없는 오늘을
세상은 살게 하지만
이 바다에 우린 오늘도
쓸쓸히 떠다니겠지



이준경

반려식물 장례식 - 그들과 이별하는 방법

<반려식물 장례식_그들과 이별하는 방법>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반려 식물들이 생명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이들과 어떻게 이별해야 할까?' 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정 마음에 걸리면 태워주거나 묻는 건 어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그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과 이별을 인정하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들과 이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 식물들에게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창작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제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전시'의 형태로 장례식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지만 장례식이길 바라며 장례식이지만 저의 반려 식물들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영감이 되길 혹은 개인적인 사유 경험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길 염원해 봅니다.

프로젝트 장소

인천문화양조장의 1층 우각홀에서 장례식(전시)를 진행했습니다. 독특한 공간 구조를 최대한 이용하여 구석구석 그림, 설치물, 영상, 음악을 설치 및 전시하고 인위적인 조명 보다는 공간 자체의 빛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덕분에 낮과 밤의 시간에 따라 장례식장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상복을 입고 상주의 역할로 추모객(관람객)들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분향소를 만들어 향을 올리고 함께 애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모객들이 장례식 형태의 전시에 좀 더 쉽게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2020. 11. 7. - 11. 8. (사전오픈 : 2020. 11. 6.)

인천문화양조장(스페이스빔)

작가 이준경 스텝 장미예 포스터디자인 이민정

음향 오퍼레이터 이종수 영상 오퍼레이터 박서혜

리뷰

한 추모객(관람객)이 글을 남겨 주었습니다. 제 마음과 같은 글이라 그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소중한 것은 떠난 뒤에 남는다고 합니다. 남은 자리의 크기만큼 많은 추억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 반려식물도 그리고 반려식물 장례식도.



유사음악x살친구(김현욱)

오페라 재구성 창작 실험 <마술 같은 이야기>

많은 색다른 연출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오페라 무대에서는 과거 양식에 의한 음악과 극의 전개, 인물, 배경 등을 유지하며 재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오페라 <마술피리>에 실험적으로 접근하여 이전과 다른 관점으로 관찰하고 재해석, 나아가 재구성하는 활동을 도모한다. 이 과정에서 동시대의 소수자들을 창작 및 감상자로서 포섭하여 기존의 틀을 허무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작품 재현의 고착화된 양태는 장르 자체의 특성 및 문법과 궤를 같이 하기에, 향유방식의 다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악 외 여러 장르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시와 연계된 두 번의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장르에 몸담고 있는 작가들과의 교류를 이끌어, 기존의 방식을 통해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연주 형태'를 모색한다.

종합하자면,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오페라라고 하는 서사적 장르의 현대적 갱신, 더 나아가 그를 기반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다. 그것은 단순히 작품 내적인 서사 구조나 음악의 부분적 변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오페라라는 장르가 재현되는 구조 그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워크숍은 모두 비대면(온라인 화상 미팅)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워크숍의 참가자들은 본 프로젝트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으로써 전시에 참여하였다.

(비대면)워크숍 1. '밤의 여왕이 준 물건들'

- 일시: 2020.10.18. 16:00~18:30
- 내용: 참가자는 오페라 <마술피리>에 대한 여러 해석에 관한 사전 정보를 접하고 작중 밤의 여왕과 관련되어 중

2020. 11. 12. - 11. 18.

용노

기획·작가 김현욱(기만), 동공, 양승욱, 허호

참여 김화현, 만경, 박효범, 이유림, 이지원, 정진아

요히 여겨지는 소품들('마술피리'와 조력물인 '종', '칼', '보주')이 가지는 의미를 각색한다. 그 후 '소품 제작 Kit'를 받아 제한된 재료와 조건 내에서 각색한 의미를 상징하는 소품들을 완성시키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공유한다.

전시 <매지컬 오퍼링(Magical Offering)>

- 일시: 2020.11.12.~11.18. 13:00~18:00
- 참여: 기만, 김화현, 동공, 만경, 박효범, 양승욱, 이유림, 이지원, 정진아, 허호
- 서문: 박규남
- 포스터디자인: 김민
- 내용: 오페라 재현 및 창작에 대한 비판과 향유방식의 다각화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는 본 전시는 앞선 워크숍 '밤의 여왕이 준 물건들'을 통해 이루어진 작품의 재해석을 바탕으로 제작된 소품들로서 재구성의 결과물을 보여준다. 전시 제목인 <매지컬 오퍼링(Magical Offering)>은 바흐가 구상하여 봉헌했던 '음악의 헌정(Musical offering)'이 가진 체현의 정신을 차용하며 프리퀀 과정으로의 단계, 재구성 창작물 전시까지의 흐름을 관통하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매지컬'은 전시의 근간을 이루는 오페라 <마술피리>의 사물들이자 작중 밤의 여왕이 선사한 소품들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기능한다.

(비대면)워크숍 2. '역할극 대담: 밤의 여왕의 속사정'

- 일시: 2020.11.15. 16:00~18:30
- 내용: 참가자는 오페라 <마술피리>에 대한 여러 해석에 관한 글 등 사전 정보를 접하고 직접 서사를 해체하고 밤의 여왕의 인물적 특성을 변형한다. 이후 참가자는 변형한 특성을 가진 인물로서 일종의 역할극으로써의 인터뷰에 참여한다. 인터뷰 결과물은 기록집으로 제작된다.

리뷰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소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원작과 그 원작에 등장한 소품들이 본래의 신비를 탈각시키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 흥미로웠으며, 동시에 이는 오페라의 재구성이라는 본 프로젝트의 목적과도 잘 부합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소품들을 동일한 공간에 병렬해 보여주는 방식의 전시를 통해 다양한 작가들의 해석과 그에 기반한 재구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었다. 또한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소품들을 변형하고 창작하여 작품 재구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면,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참가자가 등장인물을 내면화함으로써 작품을 새롭게 향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유방식 다각화'의 목적과 함께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이 되었다.



정영록

춤추는 외교관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집단인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구성하는 인간이 각자 살아온 배경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그려보고자 했다. 이 갈등은 특히 예를 중시하고 공동체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갈등을 말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이상적인 꿈을 쫓는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현실적인 것들에 잘 버텨 나가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인천예술연습공간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코로나가 점점 더 심각해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변경이 되었다. 날짜는 12월 17일 저녁 7시30분에 진행했다.



2020. 12. 17.

인천 공연예술연습공간

참여 코끼리 사타구니(윤혁진, 김수경, 안수빈, 문유성, 김남현)

리뷰

첫 시도인 만큼,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 되는 공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놓지 않고 공연을 만들어서, 관객들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연극이 되었으면 했다. 다만, 코로나 시대인 만큼 수도권 2.5단계 강화로 인해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직접 보여주지 못한 점을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배우들이 이 작업에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만약 관객들이 본다면 '진짜 꿈이 무엇이었을까?',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와 같은 생각을 할 수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 혹은 '그 꿈이 아니더라도 나는 어떤 행복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바로 그 기획



<바로 그 기획> 청년기획자

no.	청년기획자	프로젝트
1	조영아	불가능한 목소리·청취
2	알아이피 플래시	R.I.P Flash
3	박현인	'항해'의 순간, 예측할 수 없어 아름다운 삶의 그림

심의총평

<바로 그 기획>은 지역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상상·실천함으로써 풍부한 지역성을 기 대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업입니다. 2020 <바로 그 기획>은 총 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심의위원회는 그 중 총 3건 의 지원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한 지역에서 동시대 청년예술인들과 협업하거나 실험하는 방법이 구체적이 고 뚜렷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낯설고 섬세한 상상의 구체적인 실천 가능성을 보여준 기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기획자의 작업인 만큼 기획안 자체의 완성도보다 실험성, 확장성, 유연한 협업의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바로 그 기획>에 선정된 사업은 <바로 그 지원>의 선정 예술인 2인(팀) 이상과 함께 협업하는 기획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그 지원>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신청 건이 많았습니다. 기획안 등 필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 경우 형평성의 문제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자는 구체적인 형식과 과 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준비한 기획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 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문화예술 창작과 기획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을 예술로 바 라보고 작업을 확장해나가는 청년 기획자·예술가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앞으로 펼쳐질 <바로 그 지 원>과 협력해 예술인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도 의미 있는 결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채은영(독립큐레이터)

오석근(시각작가)

이규영(공연기획자)

조영아

불가능한 목소리·청취

참여 백승철(7월 바로그지원), 송가영(7월 바로그지원), 정우신(시인)

책 관련 필자 고해중, 박영옥, 박영진, 배지선, 이진이, 김지연, 김용용, 류한길, 차미혜

<불가능한 목소리·청취>는 불가능한 위상의 청각대상들과 그로 인해 열리는 무한한 청취 과정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본 프로젝트는 이 주제를 평소 작업해온 다원예술 장르의 작가(음악가, 영상작가, 퍼포먼스 작가)들에게 주제에 관한 글을 의뢰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또한 (인)문학 분야에서 위 주제를 언급한 작가 및 철학자(사뮈엘 베케트, 모리스 블랑쇼, 자크 라캉, 자크 데리다, 엘렌 식수)의 목소리에 관한 함의를 함께 엮었다. 본 프로젝트는 우리의 말하기와 청취의 중심, 혹은 한계 및 (불)가능성에 대해 회고하고자 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두었으며, 나아가 미약하게나마 청각예술의 담론을 새로이 열어보거나 가로지르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4시에 북극서점에서 책 관련 행사를 진행하였다. 인천문화재단 <바로그기획>의 필수 조건 중 하나가 <바로그기획>의 선정자와 협업을 하는 것이었기에, <바로그기획>의 선정자 송가영, 백승철에게 공연을 요청하였고, 두 선정자는 이에 승낙하여 행사 날 '구음'이라는 테마에 맞춰 공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기획자 조영아는 정우신 시인과 함께 '구음'이라는 주제로 생경한 방식의 낭독을 진행했다. 정우신 시인의 시 「구음」을 포함한 정우신 시인의 시 총 5편을 낭독하였는데, 낭독은 시의 전문이 아닌 시의 부분 부분을 번주해 나가며, 상대방이 낭독하는 입소리(구음)를 듣고 그에 대응하여 입이 옮겨가는 지점을 서로 어긋나게 또는 동시에 읊는 형태이다.

2020. 12. 29.

북극서점

기획 조영아

리뷰

행사의 소재이자 주제였던 '구음(口音)'은 '구강'으로만 기류를 통하게 하여 내는 소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구음은 국악에서 노랫말 없이 그저 입에서 떠도는 소리로 그 음악을 표현하는 것인데, 기획자는 이러한 구음의 소재가 본 사업의 책 제작 소재(불가능한 위상의 청취와 발화를 이끄는 목소리)와 유사하다고 여겨 본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그기획>의 협업자와 협업을 할 때 그 협업의 당위성을 만족하려면 협업자의 작업과 기획자의 작업이 서로 간 어떻게, 왜 맞닿는지에 대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즉, 협업자들께 그저 '구음' 관련 소재의 공연을 의뢰드리는 것 아닌, 공연이 책의 주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공연의 '형태'와 '방식'에 대해 서로 간 더 열띠게 논의하고 그 방식을 제시했어야 한다. 같은 지점의 이유로, 정우신 시인님과 낭독은 '구음'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가장 새롭고 효과적인 낭독을 할 수 있을까 충분히 고민하였고, 그것을 시도할 수 있었기에 만족스럽다. 행사 때 시도한 새로운 낭독의 형태는 책의 소재와 가까운 목소리를 실제로 체험하는 방식(시간성)을 띠고 있다고 느껴졌다.



알아이피 플래시(박이선, 권태현)

R.I.P FLASH

글 성상민, 이민주, 이정엽
음악 백승철(7월 바로 그 지원)
영상 양은경(8월 바로 그 지원)
디자인 최수빈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R.I.P. FLASH는 2020년 12월 31일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어도비 플래시(Adobe Flash)'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회고하고 추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웹 브라우저 알림창에 고지되듯, 플래시는 내년이 되면 인터넷상에서 더이상 재생할 수 없게 됩니다. 2000년대 웹 문화는 플래시를 제외하고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담론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술의 쇠락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플래시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종말을 이토록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감각하는 것이 너무도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 팀은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플래시가 남긴 문화적 유산을 다방면에서 되돌아보는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문화연구, 미술, 게임, 만화, 미디어고고학 등 다양한 학제의 연구자들이 플래시라는 주제를 놓고 논의를 펼치는 장을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종의 장례식과도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추도사를 나누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전시공간

http://ripflash.net 을 통해 문화를 기록하여 플래시가 사라진 이후에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연구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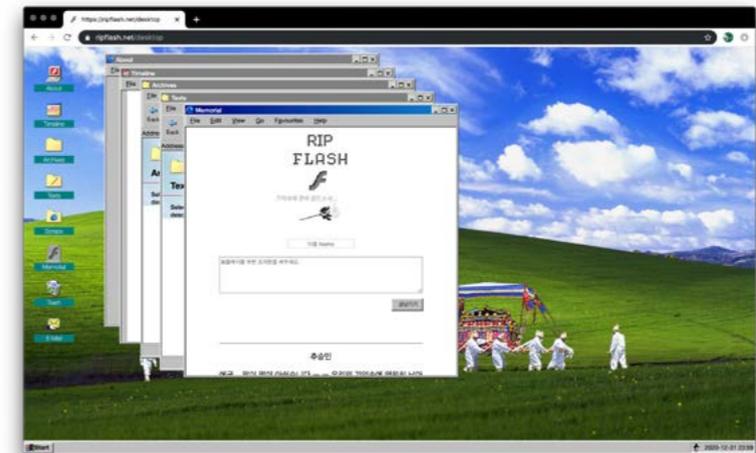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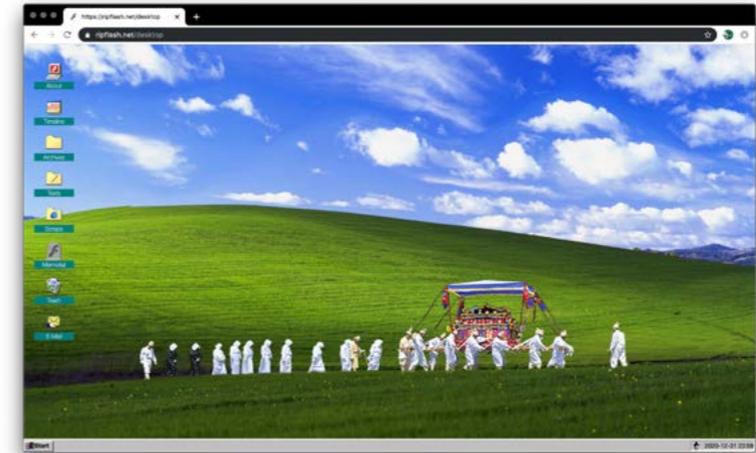
2020. 09. 1. - 2020. 12. 31.
온라인 전시공간 (http://ripflash.net)
기획 박이선, 권태현

프로젝트 내용

- 온라인 전시공간 섹션을 지속적으로 운영
- 플래시 연대기
: 플래시의 소프트웨어적 역사와 당시 기술문화사를 함께 나열하여 생애사 구성
- 플래시 아카이브
: 1990년대~2000년대의 문화적으로 중요했던 플래시 애니메이션, 게임의 영상을 수록
- 과거 플래시가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았을 때의 보도되었던 기사 수록
- 플래시 텍스트
: - Flash, 한국 만화가 암종모색 끝에 발견했던 하나의 빛 (성상민)
- 사라진 플랫폼과 남은 이미지에 대한 질문들: 장영혜 중공업 업데이트하기 (이민주)
- 플래시 게임의 플랫폼적 특이성 (이정엽)
- 조문객 방명록
: 방문자들이 플래시에게 한마디 남길 수 있는 게시판

리뷰

과거의 유산이 되려하는 플래시를 꺼내잡아 두터운 담론으로 감싸내려고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입니다.



박현인

‘항해’의 순간, 예측할 수 없어 아름다운 삶의 그림

참여 신용진(바로 그 지원 7월), 이해미(바로 그 지원 7월)

이 공연은 저희가 삶의 목표=예술활동의 지향점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수로 인한 불안함을 느끼고, 그로 인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시점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터의 내용처럼 자신만의 삶을 항해하는 주체와, 그 주체를 방해하고 변수를 만드는 요인으로 2명이 역할을 나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움직이는 무용수와 페인팅 아티스트로 인해 주체는 원하는 그림을 그려나가지 못하지만, 항해를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공연 시간동안 다양한 도전을 시도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퍼포먼스는 구성만 정해놓은 채, 실제 2명이 어떤 행동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예측할 수 없는 일종의 게임같은 퍼포먼스였습니다.

‘끝없이 실패하고, 방해가 받아도 나만의 목적지를 향한 항해를 계속한다면 결국, 어떤식으로든 멀리서보면 작품=완성된 삶이 될테니, 순간 순간에 낙담하지 말고 멀리보고 삶을 항해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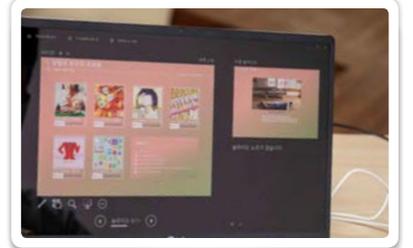
리뷰

저희 팀 크리오(흙_플로어스)는 다양한 예술분야의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안면이 없던 <바로 그 지원> 아티스트분들과 함께한 이번 작업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공연을 하지 못하게 아쉬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위 사업에서 만난 아티스트분들과 재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후에도 다양한 작업을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친분이 생긴것 같아 <바로 그 기획> 지원사업에 감사합니다.

2020. 12. 23.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기획 박현인, 전다은



바로 그 지원 현장스케치



바로 그 지원 프로그래머 리뷰

윤대희(시각작가)

작품을 만들고 결과물로 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것은 여러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 공모였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정산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매번 지원양식을 내려 받게 되었다. 처음 기금 공모에 신청서를 넣고 운 좋게 1차에 합격을 한 후 2차로 작품 프리젠테이션을 했을 때가 지금도 기억난다. 미친 듯이 나뒀던 심장과 어떤 말을 해도 무심한 눈빛으로 쳐다보던 심사위원들. 그들과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문 밖을 나왔을 때 무슨 말을 하고 나온 건지, 말은 제대로 했는지.. 긴 한숨만 내쉬었다. 그래도 이제는 이 시스템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짧은 시간 안에 내 작품과 계획을 설명하는 일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다. 무사히 방을 빠져나왔더라도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였다. 여러 번의 공모에서 실수를 반복하고 나름의 경험과 작업이 쌓인 후에야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던 기억이 있다.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년 예술가로서 창작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크고 작은 지원들은 반드시 필요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진입의 벽이 생각한 것보다 높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매 해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지원>은 청년 예술가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공모이다.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공모이다 보니 다른 공모에 비해 예술가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는 듯 보였다. 공모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지원자들의 경쟁보다는 격려와 지원을 지향하고 실험적인 태도와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그런 공모였다. 그렇기에 다소 실험적이거나 낯선 느낌의 작업 등의 독특한 아이디어들을 유쾌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올 해 <바로 그 지원>에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면서 청년 예술인들의 작업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바로 그 지원>의 지원 방식도 익히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달

랐다. 지원양식은 간소화 되어있었고 프리젠테이션(PT 데이)에서는 내가 아는 정속함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진행방식이 좀 생소했지만 신선했고 한편으로 부담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바로 그 지원>의 PT데이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각 팀별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현장에 있는 지원자와 관계자들이 함께 호흡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덕분에 서류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작업의 에너지를 온전히 전달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각자 작품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 보였다.

2020년 <바로 그 지원>은 7월과 8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엄청난 바이러스 덕택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에너지들을 포기해야만 했다. 7월에는 현장에 모여 진행되기는 했지만 대기실을 나눠 거리를 유지한 채 진행되었고 8월의 경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집합 금지가 시행되면서 PT발표를 영상으로 대신했다. 불가피하게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진행되어 참여 예술인들의 교류가 적어진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올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프로젝트 결과발표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모두 무사히 마무리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예술인들의 결과발표를 볼 수는 없었지만 방문한 몇 개의 전시장에서는 작업에 대한 고민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처럼 보였다.

올 해는 <바로 그 지원>을 기획한 재단 관계자들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한 예술인들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아쉬운 점이 많았겠지만 덕분에 새로운 시도들을 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다. 갑작스런 상황에 또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을 청년 예술가들을 위해 그들의 활동을 지지해주는 <바로 그 지원>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근영(연출가)

예술가가 원하는 바로 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바로 그 지원>이 시작되었다. 6년 전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모여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그 상상의 나라를 폼다.

경력과 포트폴리오 없이 작업에 대한 구체성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을까.

인천에서 재미난 작업이 많아지고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가 되어주면 어떨까.

서로 알려주고 도와주는 협력은 불가능한 것일까.

“지원”이라는 수혜적으로 보이지만 불평등한 경쟁시스템 안에서, 시작하는 예술가가 꾸준히 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였던 것 같다. 세부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도 같이 이루어졌다. 서류로 판단하지 않고, 모두가 심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식과 정보의 공유. 그 과정은 <바로 그 지원>에 관계하는 모든 개개인이 시간도 많이 써야 하고, 피곤하지만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기도 했다.

2020년은 누구나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작업과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인 것 같다. 지원자와 <바로 그 지원> 사이를 매개하는 프로그래머는 오프라인 미팅과 온라인 미팅을 병행하고, 프리젠테이션 데이에서는 발표자 외의 발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었다. 처음 시도해보는 채팅방에서는 질문과 응원의 메시지가 오갔다. 마스크 착용으로 보이지 않는 표정을 채팅방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피식 피식 웃는 소리와 호흡, 어깨의 들쭉임은 그 공간 안에서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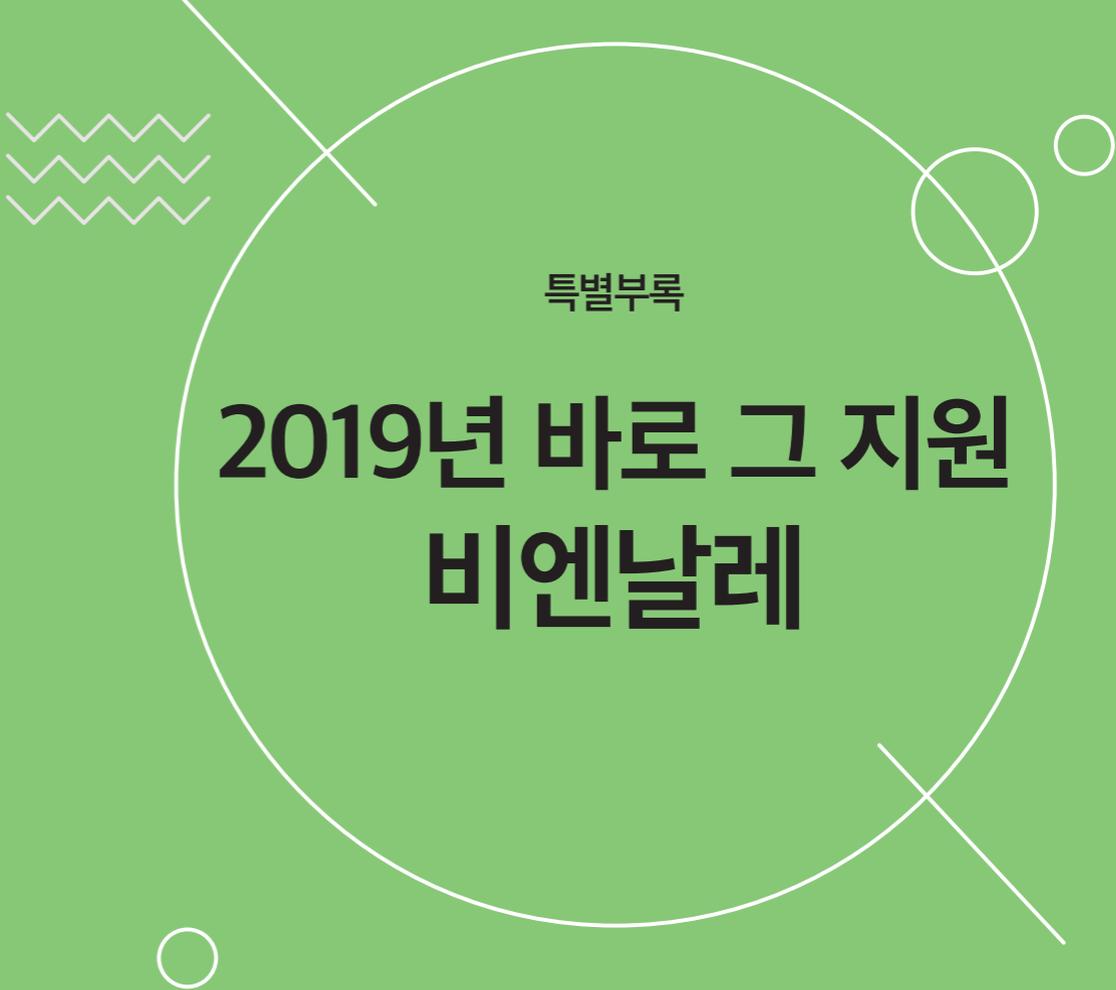
8월에는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으로 프리젠테이션 데이를 진행할 수 없었다. 자신 있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소개하던 매력적인 장소가 사라졌다. 지원자는 발표 영상을 제작해야 했고, ZOOM을 이용한 공유가 이루어졌다. 심사위원과 프로그래머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대체방식이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질문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6년 동안의 <바로 그 지원>은 어떠했는가.

시작하는 예술가가 꾸준히 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는가.

서로의 작업을 보고, 고민을 나누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여기 있는가.

2021년 예술가들이 원하는 바로 그 지원은 무엇인가.



특별부록

2019년 바로 그 지원 비엔날레



전보배

마츠모토 준의 사마귀

이한범(평론가)

제가 순전히 <마츠모토 준의 사마귀>를 보러 가려 마음 먹게 된 이유는 이 전시가 강화도의 어느 외딴 미술관에서 열린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색적인 것에 호기심을 느낀 것처럼 들릴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은 개인적인 마음의 사정이겠죠. 불현듯 아직 가보지 않은 어느 섬의 풍경이 상상되었고 그곳으로 가기까지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 기대했어요. 어쩌면 그 즈음 저는 그런 낯선 풍경과 비어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분전환이라면 기분전환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서로 너무 붙어 있고 겹쳐있는 것들에 간격을 줘야만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저 덩어리처럼 보이는, 엮이지 않고 쌓여만 있는 것들이 제 안에 너무 많았던거겠죠.

강화도를 가는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대중교통이 있긴 했지만, 차를 빌려 직접 운전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들 때문에 오가는 시간을 야겨야 하기도 했지만 누군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길을 아가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그런 약간은 긴장된 상태를 즐겨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가 온 이후라 아침 일찍 나서서 들이 마시는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도 맑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화도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는 드라마틱하지 않았는데 그저 잘 만들어진 넓은 도로를 따라 가면 됐으니까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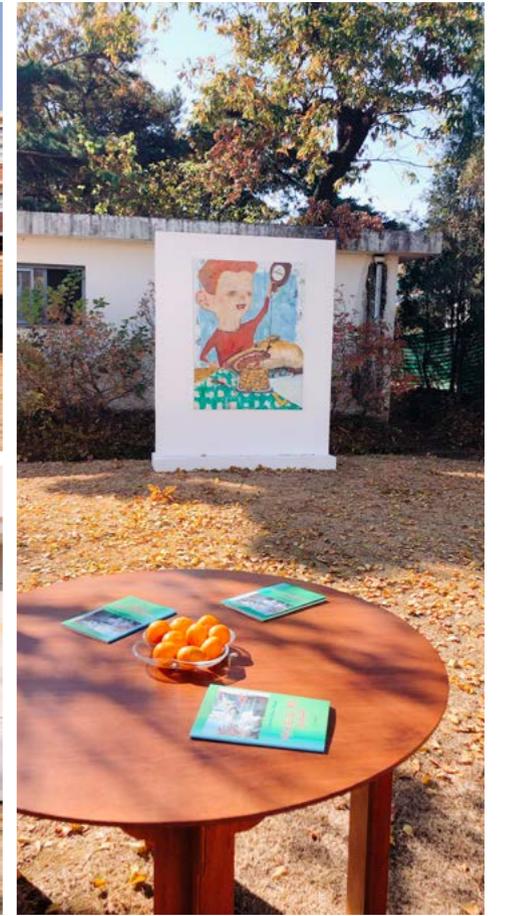
심미미술관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문화재생사업의 흉물이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2019. 11. 8. - 11. 16

용노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는 학교가 아닌 교정에 들어서면 순간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하늘은 정말 파랗고, 무엇보다 그곳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소리 없이 또 조용히 수다스럽게 있었어요. 색이 바뀌어가고 있는 식물들을 살펴보고, 자그마한 조각공원에 놓인 작품들도 이리저리 구경했습니다. 그네 한 쌍의 아래에는 물이 얇게 고여 있었고, 커다란 원형 조각의 철판에는 녹이 잔뜩 슬어 있었어요. 새삼스럽게도, 제가 매혹되는 것은 이처럼 부재를 증명하는 풍경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 세계가 그저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들이 가득하게 관여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풍경이요. 그런 풍경은 늘 진실에 대한 상념을 불러 일으키거든요. 닫혀 있는 학교 건물 밖에서 창문을 통해 안을 구경했습니다. 곳곳에 능청스럽게 놓여 있는 조각들과 그림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전시가 건물 안에서 열리는 줄 알고 입구를 찾아보다가 건물 옆 쪽 작은 공터에 걸린 <마츠모토 준의 사마귀> 현수막을 발견했어요. 섬뜩한 개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은 잘 퍼져 있었지만 나머지 하나는 멋있게 영겨 있어서 뭐가 쓰여있었는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의 책은 날이 너무 추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슬쩍 훑어보았지만 이 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꼭 읽어야만 해야한다고 느꼈어요. 신은지에 대하여. 신은지의 그림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미술이 전보배라는 한 사람을 만나며 비로소 미술이 되는 그런 이야기. 어쩌면 이 전시는 보기 드물게도, 순수하게도 미술 자체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걸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다시 책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든 생각이지만요. 저는 미술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삶과 너무 강하게 끈적



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갑니다. 미술은 노동과 여가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형태일 때가 많은 점에서 사실은 지독하게 피로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미술을 한다는 건 삶의 문제와, 나의 주체성을 만드는 일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겠죠. 동시에 모든 것을 복잡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세계가 그만큼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방법인 미술을 여전히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생각과 마음이 숨쉬고 도망갈 수 있는 사이 공간을 찾아야 하겠죠. 그렇게 제 몸을 멀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잇길을 걸어가며 고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추위로 한결 가시고 좀 더 오래 그곳에 머물며 즐길 수 있었어요. 인사드리고 나오는 길에,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도 못보고 가면 안되지 싶어 차를 몰고 근처에 가장 가까운 부둣가로 갔습니다. 해가 좋고 공기가 맑아 바닷물 위로는 눈이 부시게 물결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한참을 가만히 구경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동네 꼬마와 즐겁게 말을 나누고 있는 전보배님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빈 모습이 그것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강화도를 벗어났습니다. 바깥에서만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구나, 생각하면서요. 그럼 또 어디선가 쉽게 되기를 바라며,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지선

Madam, I'm Adam

윤대희(시각작가)

지난 8월 <바로 그 지원>에서 만난 지선작가의 개인전 <Madam, I'm Adam>을 관람하기 위해 전시가 진행중인 전시장 옹노를 찾았다. 전시장 옹노는 중구 신포시장 인근에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좁은 골목 안쪽에 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발견할 수 있는 옹노는 허름한 2층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매력의 공간이었다.

전시장 문 앞에 붙어있는 포스터에 쓰여진 전시 타이틀인 <Madam, I'm Adam>이 반짝거리며 꿈틀거리고 있었다. 무언가로 바뀌는 형상인지, 무언가에서 변형되어 고정된 형상인지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포스터였다. (제목의 'madam'과 'adam' 역시 다양하게 읽히게 만드는 재밌는 포스터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9. 12. 1. - 12. 15.
옹노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공간 곳곳을 채운 작품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전체적으로 명도가 낮게 설치된 조명과 거친 건물외 표면과 대비된 반질반질하고 반짝거리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장에 진입하자마자 보이는 작품 <Melting Mountain>은 전시장 벽면에 기대서 서 있다가 녹아내린 듯한 작품이었다. 마치 포스터 안에 그림이 연상되는 작품이 전시장 구석구석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무렇게나 섞어놓은 듯한 물감덩어리가 천장에서 타고 내리는 거울(필름지)위에 무심하게 놓여있었다. 마블링을 해놓은 것 같은 색덩어리 한쪽 단면은 예리하게 절단되어 앞, 뒤의 질감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덩어리 뒤에 설치된 거울(필름지)에 다시 아무렇게나 반사되어 또 다른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1층의 또 다른 입구에 (1층은 크게 두개의 공간으로



나뉘져있다.) 모빌 형태로 설치되어있는 <Pink Moon>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제각기 돌려 다른 곳들을 비추는 거울(필름지)은 반사되는 형태를 굴곡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해내고 있었다.



<Pink Moon>을 지나 다른 공간에 들어서면 구(球)형태의 분해된 조각들이 바닥에 놓여져있는 <Circular Circles>를 보게된다.



이 작품을 보면서 1층의 놓여진 작품들은 지속적으로 섞여지고 나뉘지기를 반복하는 느낌을 받았다. 고정된 형태지만 무언가에 반응하며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작품처럼 다가왔다.

전시장 2층으로 올라가면 나무 바닥 위에 놓여있는 아기 조각상 여러 개와 마주하게 된다. 이 작품을 보며 작가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매끈한 표면에 대한 집착을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이 아마 전시를 준비하면서 시작된 고민의 첫 작업들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전시는 전반적으로 석고, 필름지, 플라스틱 등의 재료들을 사용하면서 작가가 고민하는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지만 전부 다 다른 느낌을 가진 사물들의 나열처럼 보였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들을 통해 상(狀)을 반사하는 매끈한 표현에서 시작된 이미지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업이 어디까지 지속되는지 다음 작품들도 궁금해지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잘 드러난 작품들 외에 전시장의 틈이 난 곳마다 놓여져 있던 플라스틱 하트모형을 찾는 것도 전시 관람의 재미를 주는 요소였다.



오헬렌&최솔&정이가남

tiny little small useless

이권형(뮤지션)

유난히 맑은 공기가 느껴지는 밤 공연장으로 향했다. 공연장은 신포동의 오래된 공연 펍(pub)인 버텀라인이다. 참고로 이 글은 음알못(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 영알못(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쓰고 있다. 오헬렌, 최솔, 최근 추가된 정이가남 밴드는 바로 그 지원 오픈 발표 장소에서 처음 보았다. 이렇다 할 설명 없이 우리는 이런 거 한다고 말하듯 다짜고짜 음악을 선보였던 밴드. 최첨단의 기계나 다른 장비 필요 없이 담백한 연주에 음색으로 찍어누르는 밴드. 그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했다. 흔히 말하는 북유럽에서나 들어볼 법한 저세상 텐션의 음악이었다.

공연의 시작은 사전에 제작한 원테이크 영상을 감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빔 프로젝터가 있는 장소였으나 노트북에 마이크를 대고 영상을 감상하였다. 마치 그 옛날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다고 멀리서 보라 하여 조각만 한 화면으로 보듯이 감상하였다. 멀리서 보아도 촬영된 영상은 세련됨으로 중무장하였다. 감상 환경이 좋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감상하였다. 그렇게 영상 감상은 끝이 나고 본 공연이 시작되었다. 음악이 들리자 계획이나 해놓았던 것처럼 이전의 조악한 영상 감상 환경은 본 라이브를 위한 애프터라이프였다는 듯 덩덤/담담하게 음악을 연주했다.

음색 강패가 선뎠을 날리자 관객들은 넋을 잃었다. 뜻밖에 방문한 손님은 큰 감동에 공연에 참여하고 싶어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는 시도를 할 정도였다. 물론 공연에 참여하고있던 손님은 분위기에 억눌려 제지당하였다. 조그

2019. 12. 14.
버텀라인

만 키보드에서 레트로한 사운드가 울려 퍼지고 발광하는 북은 덩실덩실 춤을 쳤다. 그들은 곡당 개인별로 최소 2개의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들려주었다. 대략 15개의 악기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것도 모자랐는지 심지어 손바닥으로 악기를 만들어 연주했다.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진실한 관객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음악이라는 장르는 어찌 보면 상당히 폭력적인 작업이 될 수 있으나 그들의 음악은 담담하게 위로하는 것 같았다. 느낌만으로 알 수 있지 않던가.

공연 중간에는 평상시 공연에서 잘 공연하지 않는 곡을 선보였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곡이었다고 했다.이 곡을 쓰며아버지에 대한 여러 생각들, 한때는 미웠고,고맙기도 했고 그리운 마음들을 오헬렌의 마음을 들려주었다.

이러한 그녀의 이야기와 느낌으로 총만히 가득찬 곡들은 연이어 실틈없이 이어졌다.꾸안꾸(꾸미지 않은 듯 꾸민) 그들의 담담하고 소박한 그들의 스타일이 멋졌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만들어진 공연은 화려한 무대의상도 화려한 조명도 필요없이 공간을 가득채웠다.

영어 트라우마 있는 필자는 유닛마이프렌이라는 가사와 보름달 초승달을 오가는 한글 곡<보름달>, 한 손으로 여유로인 연주하던 키보드의 멜로디, 연주 시작이라고 말도 안 하고 우두커니 북을 두드리던 장면들이 남았다. 이런저런 말로 곡 하나하나 설명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비전문가라서 나도 잘 모른다. 그들이 예술가라는 것과 그들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

다. 며칠 전 올해로 5회를 맞은 무소속프로젝트가 열렸다. 이 경연에 680팀이 참가한 경연에서 오헬렌&최솔은 3위에 선정되는 큰 쾌거를 이뤘는데 그 경연의 경쟁률은 85 대 1이었다. 3위 수상소식을 공연 중간 덩덤히 말하며 부산떨지 않으며 자신의 음악을 이어 갔다. 이런 오헬렌의 음악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 강(그냥)아닥(입을 다물고)하고 그들의 음악을/작품을 찾아서 들어라. 팬이 되어 흥얼거리는 너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보름달 초승달 상현달.



전장연

주워온 우주

고경표(독립큐레이터)

개인의 경험을 현대 사회의 다양한 양상과 결부시키고 그것을 표현할 재료를 자신의 생활에서 소환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예술의 방법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의 기획이 선정된 것은 꾸밈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던 점과 그 이슈가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성들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라는 것,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볼 수 있었던 완성도 있는 감각적인 작업물이었다.

‘주워온 우주’에서도 이전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작가 개인의 타임라인에 따라 수집된 물품들이 재료가 된다. 그 물건들은 그녀의 아이가 주워오거나, 작가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물건의 용도와 전혀 맥락이 다른 위치에 재배치되면서 사물간의 낯선 언어를 만들어 낸다. 전시장에는 현재 그녀의 삶 중 8할을 차지하고 있을 ‘육아라는 전쟁에서 사용되었을’ 무기들이 작가에 의해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아 전시되고 있다. 그것들을 제목과 결부시키면 작가와 그녀의 아이가 겪었을 상황과매 찰나, 순간 그녀가 엄마로서 바랬을 소원 같은 것들이 연상된다.

다양한 사회 현안 중 특히 여성 문제의 경우 여성 집단 내에서만 형성되는 어떤 보편적인 공감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앞서 나의 경우처럼 육아 경험이 없는 내가 짧은 단어만으로도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했고 그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유추하고 그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다. 전장연의 전시가 이와 같은 맥락을 갖는데에는 주제의 보편성과 더불어 마치 하나의 이야기와 같이 전시장을 구성하고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압축한 것에 기인할 것이다.

이 전시에서 전장연이 주목한 이야기는 자신의 것이지만, 모든 여성들의 것이기도 하다. 작가에 의해 선택과 조형

2019. 12. 5. - 12. 14.

인천아트플랫폼 H동 프로젝트룸

의 과정을 거쳐 낯선 물체가, 행성이, 드로잉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을 보는 관객들에게 어떤 공감을 불러온다. 그것이 어떤 사회적 담론과 토론, 움직임을 불러오지 못할 지라도 예술 언어의 다양성과, 프로젝트의 규모, 그리고 현재를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최은지

오르기 위하여 떨어지는 그대

염지희(시각작가)

최은지 작가의 전시인 '오르기 위하여 떨어지는 그대'는 기형도 시인의 시집 <입속의 검은 잎>에 수록된 시 <이 겨울의 어두운 창문>의 일부이다. 작가는 기형도의 시집을 필사하며 이 전시를 준비했다. 나도 시집 <입속의 검은 잎>을 가지고 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책장에 꽂아둔 채로, 시집을 유심히 읽어보지도 않고 수록된 시들을 띄엄띄엄 읽으며 시집의 제목만 수없이 되새겼던 것 같다. 세련된 언어유희와 같은, 어떤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제목의 시집 그 자체를 간직하는 것이 은밀한 기쁨이었다. 이러한 나의 은밀한 기쁨을 기억하며 최은지 작가의 전시장을 찾았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최은지 작가의 추상작품들이 빼곡하다. 그리고 전시장 안쪽의 설치작업 <가는 비 온다>가 유독 눈에 띈다. 전시장의 창문을 이용한 설치작업으로, 창문에는 종잇조각들이 붙어있고 창문 밖에는 영화관에 있을 법한 의자와 작은 탁자가 있다. 창문을 하얗게 뒤덮은 작은 종잇조각들에 쓰여진 것은 시 <가는 비 온다>였다. 단어카드처럼 분절된 기형도의 시가 쉽사리 한편의 시로 보이지 않고, 유독 눈에 띄는 조각난 단어나 문장에 자꾸만 사로잡혔다. 나는 잠시 단어나 문장들을 이러저리 조합하며 이러저러한 문장들을 만들어보는 재미에 빠졌다. 전시장에 도착했을 무렵 해가지기 시작했으니까, 단어놀이에 잠시 심취해있던 동안 어느새 창밖은 어둑해졌고 조각난 <가는 비 온다>의 뒤편 유리창은 마치 스크린처럼 <이 겨울의 어두운 창문>을 상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겨울의 어두운 창문을 배경으로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머지않아 내 눈을 의심하게 되었다. 창문에 붙여진 종잇

2019. 12. 7. - 12. 22.
잇다스페이스



조각들은 약 4개의 덩어리였는데, 4개의 덩어리는 모두 <가는 비 온다>였던 것이다. 나는 각기 다른 시편의 덩어리 중 <가는 비 온다>가 적혀진 하나의 덩어리를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두 동일했던 것이었다. 아주 약간 종이의 크기와 분절된 지점들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편들로 여겼던 것이다. 기형도 시인의 시편들을 반복하여 필사하던 작가는 이렇게 조금씩 다른 필사의 덩어리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매번 다른 시를 필사하는 것처럼 낯선 느낌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전시장의 추상화 작품들은 색으로 흐르기도 했고, 안과



밖이 비치는 차가운 얼음처럼 희기도, 뜨겁게 일렁이며 붉기도 했으며, 잠시 빛나는 별을 숨긴 것 같은 깊은 어둠도 한 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전시장의 작품들은 최은지 작가의 처음으로 시도한 추상작업이다. 그리고 작품들은 기형도의 시집을 필사하는 과정과 함께 제작된 것이다. 시집은 그녀에게 어떻게 작용하였을까. 시집의 내용을 한편의 추상화로 담는 것에는 어떤 과정이 숨어있을까. 각 작품마다 기형도의 어떤 시와 구절이 담겨있을까. 왜 추상화였을까. 그리고 화폭 안에 있는 그 이미지는 무엇일까. 작가의 추상화를 앞에 두고 이런 생각들이 불쑥 불쑥 고개를 내밀어 조금해지고 오묘한 감상을 방해하곤 하였다. 유추해내고 싶기도, 작가를 추궁이라도 하여 그녀의 말을 빌리고 싶기도 했지만, 그것이 작품을 위한 특별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작가와의 긴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 최은지 작가는 자꾸만 고개를 드는 질문들에 커다란 그물을 덮어 놓은 것 같았다. 그 그물은 기형도의 시집이고, 그의 시 <가는 비 온다>이다. 아마도 나의 조금했던 마음을 들여다본 것일까. 사려 깊은 작가는 나에게 이런 말

을 건넸다. 시 <가는 비 온다>에는 '지금은 한 여자가 그 집에 산다. 그 여자는 대단히 고집 센 거위를 기른다.라는 구절이 있고, 필사를 할 때마다 그 구절의 '그 여자가 신경 쓰였다고 한다. 이때 마치 중요한 단서를 얻은 듯한 느낌이였다. 나는 그 '여자로부터 시작하여, 어쩌면 그 '여자가 되어, 필사된 시를 다시 되새겼고 그녀의 작품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최은지 작가의 전시 소개 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기시감'이다. 실제 경험하지 않았던 낯선 것을 마치 꿈에서 본 것처럼 확신이 섞인 익숙한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기시감' 혹은 '데자뷔'라고 한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표현한 것이 기형도의 시를 통해 느낀 본인의 심상이나 감각이 아니라 '기시감'이라 지칭한다. 작가는 기형도의 시를 읽다보면 마치 본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기술한 것 같았다고 한다. 마치 기형도가 본인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작가가 필사를 하며 느낀 것을 '기시감'으로 지칭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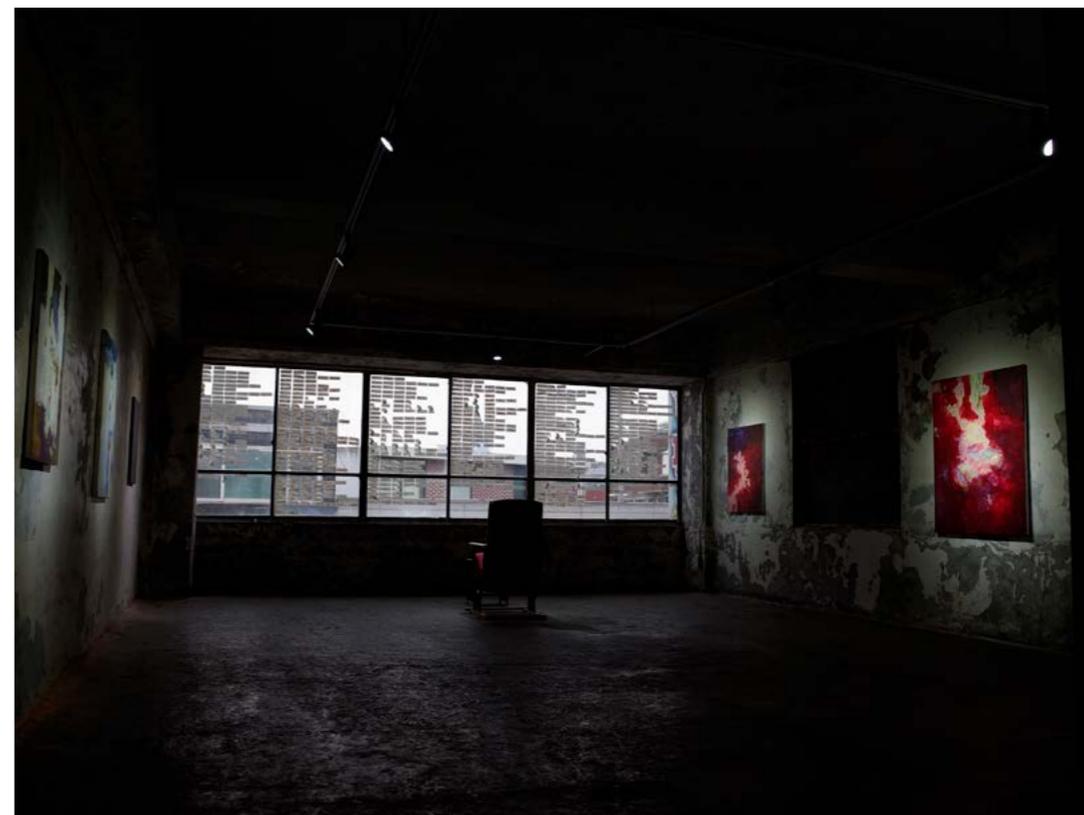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나는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되었고 내가 반대로 작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간직한 유일한 추상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유년 시절부터 반복해서 꾸었던 악몽에 관한 것이다. 아주 붉고 커다란 덩어리 같은 것이 보이는 꿈이었다. 무엇을 꾸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이 꿈을 꾸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흔적처럼 남아있는 감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나는 아마도 그것이 어둠 속에서 붉게 요동치는 나의 몸 내부를 들여다본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나의 꿈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형체가 없는 이미지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언급하는 '기시감처럼 감각이 그 존재를 고집스럽게 증명하는 근원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형도 시인은 '입속의 검은' 것을 말하고, '가는 비를 쓰며,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리고 최은지 작가는 기형도의 시가 가진 형상들을 되짚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의 형상과 빼닮은 시의 형상에 기시감을 느끼며 자신의 근원적인 형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 형상은 어쩌면 이미지로 연상하여도 형체를 뚜렷이 할 수 없는 이미지일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떨리는 입 속에서 언뜻 보이는 어둠처럼, 가늘게 떨어지는 비처럼, 잠시

존재하다 사라지고 찰나의 시간이 연속되는, 오로지 잔상으로만 누적된 실체 없는 형상인 것 같다.

나는 마지막으로 작가에게 '단단해지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냐고 물었다. 작가는 단단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향하며 그리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녀의 답변을 듣고 나서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였다고 생각했다. 전시명 '오르기 위해 떨어지는 그대'가 다시금 나의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이 겨울의 어두운 창문>의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중략) 놀라워라. 가장 무서운 방향을 택하여 제 스스로 힘을 겨누는 그대, 기쁨을 숨긴 공포여, 단단한 확신의 즙액이여.(중략) 오오, 모순이여, 오르기 위하여 떨어지는 그대, (중략) 나 또한 얼마만큼 오래 냉각된 꿈속을 뒤척여야 진실로 즐거운 액체가 되어 내 생을 적실 것인가.”



변여울

2018년 9월 18일부터의 기록

고경표(독립큐레이터)

우리는 타인의 사고나 고통의 경험을 완치나 죽음이라는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과정은 생략한다. 단순히 의학 적 측면에서의 고통의 경험이 아니라 사회에서 삭제된 개 인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드로잉, 텍스트, 체험, 퍼포먼 스 등 직, 간접적인 예술적 표현들을 통해 그 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8월 <바로 그 지원> 프리젠테이션 데이의 기억을 소환해 본다. 그 당시 참여했던 작가들의 현장투표의 결과로 가장 많은 득표로 선정된 작업이었다. 자신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직시하고 용기 내어 예술로 보이려 했던 작업. 그리고 몸을 도구 삼아 자신의 예술을 표현했던 이 가 더 이상 몸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예술을 하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동료 작가의 용기에 대한 지지였 으리라,

변여울의 개인전 <2018년 9월 18일 부터의 기록>은 작 가에게 삶의 변곡점이 된 사고에 대한 경험을 펼쳐놓은 전시이다. 전시장에는 사고 이후 작가가 재활하는 동안 사용했던 신체 보조 기구들과 침대를 설치하여 당시의 경 험을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게 하였고, 그녀가 겪고 느꼈 을 다양한 감정들은 오브제가 되어 작품으로 제시된다.

작가의 경험, 감정과 같은 내면의 세계를 작품으로 드러 내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변여울의 전시에서는 방 법을 넘어서는 감정들이 아주 솔직하게 드러난다.

신체를 꿰뚫고 있는 나뭇가지와 자신의 몸을 표현한 그림, 그리고 재활 기간 동안을 기록한 고통일지 등 내가 나 이지 못하는 시간 동안 다시 나이길 위해 거쳐야 했던 과 정을 담은 기록들이 작가의 고통과 복잡한 심경들을 대변 하고 있다.

2019. 12. 18. - 12. 30.

용노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은 다음에는 그 전과 동일한 상태일 수 없다.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나 구구절절하고 때론 구차해서 한두 번 시도 하다가 결국 “괜찮아” “나중에” 로 통치고 마는 때가 있다.

사실 그 사건은 나, 개인의 일이기에 그로 인한 변화 역시 나 자신이 오롯이 감당해 내야 몹이며, 이에 대해 타인으 로부터의 공감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 지도 모른다. 작 가가 사고 이후 수없이 들었을 말과 위로도 지극히 일반적 인, 보통의 반응들이었을 것이다. 그 형식적인 말과 몸짓 들을 주고받을 때 위로가 되었는데, 진정으로 공감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가능하거나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들이 꼬리를 문다.

지난한 과정을 지나왔지만 ‘원상복귀되는 것이 불가능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견뎌 왔다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으며 이 프로젝트가 작가에게 그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이현호

배-너(복수의 화신)

박준석(시각작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이현호 작가는 인근 지역이나 타 지 역을 오가며 보게 된 일상풍경들과 현수막을 사용하여 작 품을 만들어 낸다. 작가에게 현수막은 현시대를 반영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전시장에 설치된 현수막 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분양, 건축자재, 콘서트 등 다양 한 홍보를 목적으로 한 현수막이 사용되었다. 이 위에 아 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공사현장, 저수지, 소나무 등 여러 소재를 그려 넣어 작품으로 완성한다.

불법으로 설치가 행해지는 현수막 홍보물들과 무분별한 개발현장. 이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한둘이 아니 다. 난개발로 인한 혹은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된 아 파트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그 이면에서 현수 막 이미지는 최소한의 소비 단위로, 아파트는 경제를 의 미하는 큰 소비단위로 하여금 자본주의 소비문제를 엿보 았다.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 다. 대량생산으로 만들어지는 현수막의 느낌은 너무나도 가볍지만 대중에게 홍보되는 문구나 이미지들은 한 구 석에 자리 잡은 소비욕구를 자극한다. 평균 700만원, 마 감임박, 선착순 등 새로 지어진 건물들과 상품들을 좋은 가격, 좋은 선택, 좋은 이미지들로 물문화시킨다. 대량생 산 된 상품들은 현대를 소비의 사회로 만들었으며, 무엇 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와 계급으로 나뉘어졌 다. 인간의 존엄성은 물질적 가치, 시장논리에 따라 훼손 되었고 결국 사물화 되었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스페이스 빔은 인천 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때마침 동구는 12월19일, 불법현수막 주민수거 보상제 참가자 모집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상업용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 면 그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전시기간에 작가의 이번전시는

2019. 12. 17. - 12. 31.

인천문화양조장(스페이스빔)

참가자모집기사와 함께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수막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회자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작 가의 전시를 보면 다시 상기된다.

세로로 길게 늘어진 소나무 작품들은 아파트 단지에 미 관을 위해 심어진 노송들이다. 그 뒷면에는 분양 홍보 문 구가 가득하다. 고개를 높이 올리고 멀리서 보아야만 한 눈에 들어오는 큰 작품에서 주님 보다는 건물주라는 유 행어가 생각나며 왠지 모를 헛웃음과 씁쓸함이 느껴진다. 안이 뚫려있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입체 조형물 은 현수막 위에 페인팅을 하여 그 위를 덮어 놓았다. 작가 는 현수막에 물감을 사용하여 홍보이미지를 지우거나 뒷 면을 사용하여 페인팅을 하는데 눈이 읽히는 기존의 문 구나 완성된 작품이미지들은 눈앞에 보이는 진실과 거짓 을 구분하는 잣대를 만들어준다. 작가는 작품으로 결과 를 돌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에게 화두를 던져 지속적 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옳고 그름으로 정답을 나눌 수 있 는 이분법적인 태도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판별 할 수 있 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사회적 문 제들을 한번 더 돌아보고 스스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단지 생각에 머물지 않고 어떠한 행동을 동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작가는 말한다. 현수막을 수집하 고 분해, 작품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 구조에서 일어난 불만과 갈등, 욕망들의 문제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지금도 현수막은 바람에 흔들리며 자극적인 문구와 현란 한 이미지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라지길 반복한다. 작 가의 ‘배-너’(복수의 화신)로 하여금 사회 시스템의 문제 나 오류들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허지은

STORAGE PROJECT

오석근(시각작가)

<스토리지프로젝트>는 시.공간에 묶여 있는 공연예술의 특징을 넘어서고자 한다. 공연예술을 미디어를 통해 기록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변형되는 공연예술을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를 본 공연/전시에서 읽을 수 있었다. 관객은 현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스마트폰)를 통해 공연을 기록(저장)하는 과정을 공연과 함께 볼 수 있었으며 또한 다른 시.공간에서 펼쳐진 행위를 미디어에 의해 재해석한 결과 또한 영상과 사진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그간 안무가 또는 퍼포먼서의 행위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 기록되어 왔고 또 그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들의 행위는 말과 비슷해서 시.공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에 이를 저장하는 또는 복사하는 미디어가 뒤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간 대부분의 기록이 현장의 공연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했다면 현 시대에서는 현장의 기록을 넘어, 영화적, 연극적 문법이 더해지는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적 방법론이 혼합된 미디어 작품으로 '공연예술'이 재탄생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목격하는 움직임과 영상을 통해 목격하는 움직임은 분명 다르다. 그러하기에 각각의 특징을 목격할 수 있는 스토리지 프로젝트는 비록 예산, 장소 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목적과 의도가 잘 드러났기에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그간 블랙박스 속 연출된 공간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 과 '공연예술영상' 이 보다 흥미로울 때가 많았다. 아마도 우리의 생생한 삶이 배경이 되고 주제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스토리지 프로젝트>에서 펼쳐진 공연과 영상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질문한다. 정재우의 <전화받는 사람>은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신체, 결국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가 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민수의 <댄스필

2019. 12. 14. - 12. 15.

빙고

름 휴식>은 휴식하고 싶지만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는 이들, 강박과 불안에 쉬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정재우의 경우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작을 적극 차용하는데 이는 그간 스마트폰을 놓지 않기 위해 온갖 아크로바틱한 자세를 취했던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준다. 어느 순간 일상이 '스마트폰 놓치 않기' 라는 미션을 수행하는 서커스 또는 기계가 된다.. 정민수의 <휴식>도 마찬가지 인데,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강박에 놓인 사람들의 다양한 자세와 노력이 일상의 장소에서 펼쳐진다. 되려 휴식을 위한 일반적인 자세와 방법이 오히려 휴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말한다. 침대에 눕기, 동네 산책하기, 등산하기 등 어찌 보면 자신의 신체를 이해하고 휴식을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닌 남이 정해준, 휴식의 매뉴얼을 따르기에 우리의 온전한 휴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스토리지 프로젝트>의 장소는 인천아카이브카페 빙고다. 건축가 이의중의 건축재생 철학이 담긴 곳으로 '공연영상의 저장' 이라는 본 전시/공연의 주제와 동일하게 건물의 역사 더 나아가 지역의 역사를 담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곳이다. <스토리지프로젝트>는 이러한 공간의 특징과 주어진 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별한 조명설치 없이 공간의 조명을 활용하면서도 극적 연출을 수행했으며 1층, 2층으로 구성된 공간의 2층을 공연관람을 위한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공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풀어냈다. 당연 공간의 가치를 그리고 역사를 한 층 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근 미래에 영상을 통해 재해석된 정재우의 <전화받는 사람>과 실제 공연화 된 정민수 <휴식>를 목격하고 싶다.

이지원

아치: Arch 그 안에서 비쳐 나오는 강박적인 불안에 대하여

박준석(시각작가)

이지원 작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걸쳐 형성된 감정이라는 것. 불안과 공포, 외로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물음을 경험에 비추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소재들은 성상, 바위, 아치와 아케이드 등으로 나무판의 질감을 살려 연필로 그려낸다. 이번 <아치:Arch 그 안에서 비쳐 나오는 강박적인 불안에 대하여> 전시에 작가가 다루고 있는 소재 중 하나인 아치와 아케이드 구조는 필요성에 의해 오랜 세월 존재한 건축양식 중 하나이다. 이 구조물을 작가는 개인적으로 갖게 된 불안한 감정들을 투영하고 삶과 죽음을 사유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바라본다. 작품에서 보이는 아치를 통한 아케이드 공간 속에 놓인 성상과 바위는 영험해보이기도, 초라해 보이기도 한다. 작가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괴리감과 생경함을 아치와 성상, 바위를 사용하여 작품으로 나타낸다. 아치를 통해 바라본 나무판에 채워진 수많은 연필자국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그려냈음에도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성상과 바위들에서 어딘가 모를 적막함이 느껴진다.

고대 로마시절부터 사용된 아치(arch)라는 건축구조는 옛날부터 삽화나 도상 등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 아치와 연결된 구조를 아케이드 라고 한다.

아치와 아케이드는 인간을 품는 공간의 역할을 하며 긴 세월을 함께 해온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원적인 불안과 공포, 외로움 등의 감정을 조망하고 사유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아치와 아케이드를 바라본다.

작가 자신의 강박적인 불안을 아치와 아케이드에 투영해 보는 회화가 기반이 되는작업을 진행하고 전시한다. 돌아가신 할머니 댁에서 발견된 형광색 성상, 여행 중에

2019. 12. 10. - 12. 31.

회전예술

보게 된 낙산사의 거대한 해수관음상의 뒷모습, 의미 없이 놓인 석재상의 거대한 바위들은 낮익은 것들에 숨어 있어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이면에 속해있던 불안감이다. 이 불안감은 친밀한 것에 느껴지는 낯설음을 말하는 언캐니(Uncanny)와는 다르다. 작가의 경험에서 그 형상들은 익숙하고 친밀한 것들이 아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밀고 들어오는 불안감이다. 작가는 해수관음상이나, 성모자상 등의 형태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그것들의 뒷모습을 보며 죽음과 삶에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공포, '나라는 존재가 외면 받을 것 같은 공포, 스스로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운 감정들에 의문을 던져본다. "내가 가지는 히스테리컬한 심상이 나의 이전 또는 더 이전 세대에서 일종의 전수받은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요즘 관심을 가지는 아치라는 공간의 구조를 보면서 말이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한다. 처음 겪는 것들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칼 융(Carl Gustav Jung)이 기술한 "그가 태어날 세계의 모습은 하나의 허상으로서 이미 그의 내부에 타고난다."의 글처럼 그의 이론인 집단무의식과 유사할지도 모른다. 또 작품에서 보이는 단상 위에 바위나 상 위에 성상은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적인 관점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에서 언급한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다. 죽음 앞에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것들은 무의미해지고 의미 없이 생각했던 것들은 오히려 의미를 묻기 시작한다. 작가에게 존재가 지닌 의미를 찾고자 하는 물음은 어느새 강박적인 불안으로 엄습하여 덮쳐온다. 이런 생각과 감정들을 아치와 아케이드에 투영한다. 아치는 어느 곳이 시작과 끝인지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이며 작품 속 공간에 속하기도, 다른 공간을 연결하면서 무한한 회귀관계를 만들어낸다. 미로처럼 얽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벽면

에 설치된 작품들이 공간을 공유하고 상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원을 찾기 힘들만큼 오랜 시간 여러 건축형태로 사용되어진 아치를 보며 “세대를 초월한 인간보다 더 오래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작가는 말한다. 작가가 다루고 있는 소재들은 애초에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존재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작가는 “오래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표현한다. 형광색의 성상과 바위는 작가의 작품으로 남아 흔적과 기록의 매개체가 되어 의미를 얻게 되고 죽음 앞에 의미와 무의미의 구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아치는 작가와 동일시되어 그 안에서 비쳐 나오는 강박적인 불안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여로

긴 끈

오석근(시각작가)

이여로의 <긴 끈>은 책으로 출판됐다. <긴 끈> 속의 글은 한 페이지에 단단히 묶이지 않고 양 페이지를 자유롭게 넘나들거나 여백은 고려하지 않고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등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책에 글을 놓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책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던 방식이 아닌 글을 다른 형식으로 놓았을 때 어떤 역할이 가능하고 이러한 글이 모인 책은 어떠한 가능성을 품고 있을지 적극적으로 실험하는 것으로 읽힌다. <긴 끈>에서 글이 놓인 방식이 전형적이지 않기에 되려 그 방식에 따라 글을 읽는 것에 희열이 존재한다. 글은 이미 보편적인 표현의 수단이지만 책 속에 글을 놓는 방식이 또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긴 끈>은 증명한다.

이여로의 <긴 끈>에는 수많은 타자의 글과 자신의 글을 섞여 있다. 인용한 글의 출처가 책의 말미에 있고 각각 페이지에 인용된 글은 본 글의 전후 맥락을 알 수 없이 일부가 발췌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는 이여로의 편집, 때론 각색을 통해 <긴 끈> 책 속에 재배치 그리고 재배열되어 ‘이것은 그 누가 쓴 글이다라고 그 권위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한다. 이 파편들이 엉키고 섞이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어느 누군가의 일기 또는 자신과 타자의 글이 자유롭게 엮이고 섞인 어떤 사유를 담은 또는 표현한 노트가 된다. 이 노트는 자신의 사유를 전달한 글이 이미 세상에 존재한다면, 재생산 없이 그 가치를 활용하고 응용, 변형하는 것이 현시대에 유용한, 실용적 방법이라 이야기한다. 위, 책 속 글의 놓는 방법에 따라 사유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글을 쓰고 편집하고 엮는 방법을 통해 또 다른 사유로 우리를 이끈다.

2019. 12. 14.

슬로스

이여로의 <긴 끈>의 글은 팔황당의 음악의 한 요소가 된다. <긴 끈> 속 글은 여러 사람이 낭독하였고 이를 팔황당은 가사로 활용한다. 보통 낭독을 위한 음악은 텍스트 또는 그것을 활용한 곡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긴 끈>의 음악은 텍스트와 음악이 균형을 유지하거나 서로 위치를 주고 받으며 온전한 음악으로 위치한다. 마치 작곡 팔황당, 작사 이여로와 타자(편의상), 노래 양리아 등 21인으로 완성된 정규 음반을 듣는 경험을 선사한다. 더불어 <긴 끈>의 텍스트가 그러하듯 팔황당의 음악 또한 때론 특정 뮤지션을 연상케 하거나 과거 라디오 낭독곡의 소리 또는 분위기를 소환한다. 이러한 팔황당의 음악과 <긴 끈>의 텍스트는 다층적인 레이어를 품고 그곳에서 여러 경계, 접점을 생산한다. 그러하기에 속물적 가사가 넘치는 대중음악과 의미를 알 수 없거나, 일상의 감정에 매몰된 인디음악의 가사와 대비되면서 ‘글의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여로는 <긴 끈>을 통해 ‘글이 가지는 본연의 특징과 의미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하며 그것을 둘러싼 전형성을 흔들고 그것이 품은 가능성을 책, 소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험한다. 글을 보기에 글을 보고 사유하기에, 글을 넘어서 쓰는 글, 글을 둘러싼 환경을 넘어서는 행위를 생산한다.

김나현

프린스 차밍 만들기

염지희(시각작가)

전시장을 들어섰을 때, 작가가 만든 가상의 브랜드 ‘참스 Charms’의 메이크업 장난감 상자가 대량으로 쌓여있었다. 아름다운 색감과 디자인의 장난감 상자에 무수한 신체인형이 기괴하게 들어차 있으리라 예상했던 나는, 대부분 텅 빈 채로 어둡게 비어있는 상자들에 어리둥절하였다. 그와중에 비어있는 상자들 가운데 몇몇 개의 상자에 담긴 입술과 코 모형의 신체인형들은 더욱 낯선 위화감으로 나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으리라.

여성과 코스메틱, 미의 기준에 대한 김나현의 전시는 다분히 ‘페미니즘’에 대한 화두를 연상하게 하였다. 근래에 ‘페미니즘’이라는 화두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나는 현재의 가까운 페미니즘이 궁금했다. (고백하자면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페미니즘의 역사’를 접했던 것이 전부였을지도 모른다) 인간 문명에서의 만성적인 ‘소외의 역사’에 대해 여성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촉발한 이 저항 운동은, 모든 소외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유의지를 상기시킨다. 어쩌면 내가 정의한 페미니즘은 ‘여성’이라는 제한적인 화두에서 벗어 난지 이미 오래라고 여긴 것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근래에 대두되는 페미니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여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였다. ‘탈-코르셋’ ‘탈-코스메틱’ 등 다소 원초적인 ‘이탈’이 강박적으로 반복되어 유형처럼 되살아난 페미니즘의 이름이 낯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내가 낯설게 느끼는 이유 또한 궁금했다.

30대인 나와, 20대인 김나현은 열추 7-8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났다. 우선 우리가 경험했던 코스메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놀랍게도 청소년기와 성년기를 거친 코스메틱에 대한 관점과 경험은 큰 차이가 있었다. 이제 막 코

2019. 11. 8. - 11. 16.

칠통마당 - 이음마당

스메틱 로드샵이 생겨나던 시절에 20살이 된 성인이었던 나는 다양한 코스메틱 제품을 접하는 것이 즐거웠던 것 같다. 유년시절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립스틱 장난감이 엄마의 화장대에 자리 잡았던 근사한 립스틱으로 바뀐 마법같았다. 김나현 작가는 나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자신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학급에서 붉은 틴트를 바르지 않는 여학생은 쉽게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어린시절부터 코스메틱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래의 환경은 코스메틱이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 마치 의식주의 하나처럼 스며들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 아닌 의무처럼 더욱 공고해진 듯하다. 10년도 채 안된 시간 속에서 빠른 변화가 생겨났고 그 변화가 낯설게 느껴졌다. 현재의 페미니즘의 화두를 더 이상 낯설게 느낄 수 없었던 순간이기도 했다.

나를 비롯해 어느 세대에게 코스메틱은 장난감의 이미지에서 출발하였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세대에게 코스메틱을 장난감처럼 거리를 두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 아동은 장난감과 놀이를 통해 사회적인 역할을 간접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어쩌면 장난감은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주어지는 자유와 선택의 실재를 유예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장난감은 사회가 가진 이미지가 과도하게 범람하고 경계심이 사라졌을 때, 실제와의 경계 또한 사라지며 모방이 아닌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 것 같다. (그 예로 전후시대인 1960년대에 미국의 아메리칸 베이직 사이언스 클럽이라는 기업은 핵에너지실험(Atomic Energy Lab)이라는 이름의 장난감을 시판했으며, 제품에는 실제 우라늄, 라듐과 같은 화학원자들이 들어있고 방사성 물질의 움직임을 관찰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제 코스메틱 장난감은 더 이상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니다. 코스메틱 제품의 외관만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기능이 작게 축소된 일종의 미니어처가 되었다. 마치 이미 마법이 완성되어 버린 것 같은, 기능을 획득한 장난감이랄까. 김나현 작가의 ‘참스Charms’는 실제와의 경계가 사라진 장난감이 나올법한 현재를 풍자하듯 보여주는 것 같았다. 또한 그녀는 동시에 장난감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코스메틱에 다시 한번 장난감이 되기 위한 마법을 시도하는 것 같았다. 전시와 연계된 워크숍은 참여자들에게 실제 크기와 모양이 흡사한 신체인형인 ‘참스 Charms’를 제공하여 더욱 매력적인 입술 모양을 만들고 직접 립스틱을 바르는 코스메틱의 세밀한 과정을 매뉴얼화 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이었다. 통속적인 미의 기준인 ‘예쁘고’, ‘아름답게’, 그리고 ‘여성스럽게’를 제시하여 만들어진 입술과 입술의 색은 놀랍게도 제각각이었다. 거의 화장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옅은 분홍빛 입술과 과도하게 화려하게 느껴지는 붉은 입술까지, 참여자들은 자신의 것이자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기도 한 미의 관념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워크숍에 지원한 참여자들은 코스메틱과 친밀하지 않은 여성들이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워크숍 참여자들의 특성과 결과물들이 김나현 작가의 ‘참스Charms’를 장난감으로써의 완벽하게 완성했다고 생각한다. 워크숍을 통해 ‘참스Charms’는 변형과 선택을 위한 충실한 장난감이 되었다. 참여자는 상상하고 선택한 가상의 아름다움을 실험하는 놀이를 하였고, 미의 관념에 대한 개별적인 간극과 차이를 생산하였기 때문이다. 문득 나는 코스메틱이 만들어낸 미적 형식이 여성을 구속하기도 하였으나 시대에 따라서는 저항과 해방을 위한 표현의 형식으로 변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어쩌면 저항의 형식이 또 다른 구속의 형식이 되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형식의 바깥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의문도 들었다. 코스메틱처럼 형식 그 자체가, 미적 기준이 당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인지를 질문할 수 있는 형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김나현

작가의 전시와 그녀와 나는 긴 대화를 통해 비롯된 많은 질문들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던지는 질문들은 내가 스스로 답해야만 하는 것들이었다.

김나현 작가는 워크숍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성별, 연령, 특히 코스메틱 관련 접근성에 따른 지역적 결과의 차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참스Charms’상자의 장난감들이 채워질지 기대가 되었다. 사실 나는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속이 어둡게 텅 빈 ‘참스Charms’상자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그것을 그대로 비어둘지, 무엇을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하다가 텅 비어 있는 ‘참스Charms’상자 그 자체가 더욱 갖고 싶어졌달까. 아마도 그것은 나의 ‘미적 선택’의 ‘자유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질문하는 그 어떤 마법의 상자’와도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

극단 우주선

우주로 간 토끼

전윤환(연출가)

조용한 도서관이 시끌시끌하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소리다. 깔깔깔 웃고 떠드는 소리다. 등장인물과 목청 높여 대화하려 애쓰는 아이들 소리가 도서관을 가득 채운다. 마치 책이 활짝 펼쳐져 그 속에 이야기와 등장인물을 만나기라도 한 듯 아이들이 참 신나 있다. 같이 온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극을 쫓아가며 한참 웃는다. 극단 우주선에 <우주로 간 토끼>는 세대를 넘어 보게 하는 힘이 있는 연극이었다.

<우주로 간 토끼>는 고물상 할머니와 함께 사는 토끼가 주인공이다. 토끼는 재활용에 관한 자신의 체험을 관객과 나누기도 하고 고물상을 어지럽히는 똥개에게 재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기도 한다. 토끼와 똥개 둘은 조금씩 가까워진다. 똥개를 통해 토끼는 자신의 엄마가 고물상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고 버려진 책을 통해 자신의 엄마가 달나라에서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토끼는 고물상에 있는 재활용품을 이용해 우주선을 만들어 달나라로 떠나게 된다. 환경보호, 재활용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달에 사는 옥토끼에 대한 설화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우주로 간 토끼>는 크게 두 가지의 플롯으로 구성되어있는 이야기로 보인다. 고물상에서 살고 있고 재활용을 잘하는 토끼의 이야기, 토끼가 엄마를 찾아 우주로 떠나는 이야기. 이 두 가지의 플롯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똥개 또한 기능적인 역할로 존재하고 똥개의 서사나 질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배우들의 연기가 참 인상적이었다. 연극이 시작되고 20분간 저세상 텐션을 보

2019. 11. 2.

용비도서관-미추홀구립도서관

여준다. 리듬과 템포는 관객의 태도를 만들게 되는데, <우주로 간 토끼>에 배우들은 이 작품에서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디지털 원주민인 아이들이 지루할 틈 없이 무대를 휘젓는다. 디지털 매체와 소통하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이 일방적인 수신자로서 객석에 오랜 시간 앉아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로 간 토끼>에서는 관객과의 인터랙티브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토끼가 먼저 재활용하는 법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직접 무대에 나와 재활용하는 방법을 시연한다. 보통 무대에 나온 친구들에게는 상을 준다. 이 작품 또한 토끼가 상을 준다 하기에 당연히 캔디나 초콜릿 등의 것으로 생각했는데, 토끼가 제일 좋아한다는 당근을 준다. 당근이라니! 객석이 자지러진다. 재활용품을 사용해 악기를 만들고 이 악기로 관객들과 박자를 주고받는 장면도 좋았다. 아이들의 리듬감과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단연 재활용품으로 우주선이 만들어지고 우주선이 이륙하는 장면이었다. 극장이 아닌 도서관 강당에서 환영을 만들어 내는 일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정말 우주선이 이륙하는 환영을 보게 된다. 몸이 들썩거리게 하는 장면이었다. 연극이 끝나고 아이들이 미리 준비해 온 재활용품과 극단에서 준비한 물품들로 아이들이 자신만의 우주선을 만든다.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해 보고 직접 만드는 그 시간이 참 좋아 보였다.

그날,

진짜 우주선을 본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는 거.

이 아이들이 만들 우주선이, 우주가 기대된다.

인천문화재단
신진예술가기획지원
2019-2020 바로 그 지원 결과자료집

발행처 인천문화재단

발행인 대표이사 최병국

발행일 2020. 12.

편 집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부

2020년 바로 그 지원 프로그래머 권근영, 박가인, 박준석, 윤대회, 이권형

디자인 및 인쇄 다인아트

© 본 자료집은 인천문화재단 신진예술가기획지원 2019-2020 바로 그 지원 결과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사진과 글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공공저작물입니다.

해당 목적 이외의 사용은 발행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195
t. 032-455-7100 f. 032-772-7190
www.ifac.or.kr

